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및 정부청년고용대책

2015. 12. 17.

차례 CONTENTS

1.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2016년도 사업방향	1
2. 2016년 사업 운영대학 선정 공고문	17
2-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고문	19
2-2.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공고문	45
3. 2015년 정부청년고용대책	63
3-1. 인문계전공자 취업촉진방안	65
1.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67
2.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인문계를 부탁해~)	97
3-2.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103
1.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105
2.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139
3-3.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145
[참고] '14~'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189

1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2016년도 사업방향

청년취업진로지원 2016년도 사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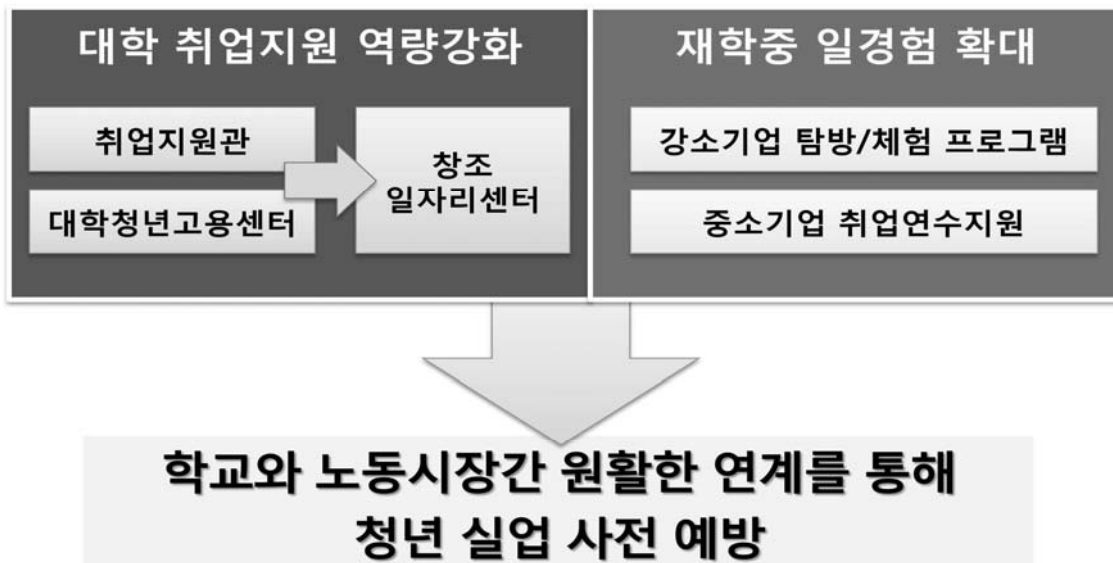


목차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 1 사업 목적 및 개요
- 2 16년도 사업규모
- 3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공모설명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16년도 사업규모

구분	사업명	2015년	2016년	비고
총예산	청년취업진로지원	70억	165억	95억 증가
대학 취업지원 역량강화	취업지원관	68개교	25개교	
	대학청년고용센터	44개교	35개교	
	창조일자리센터	21개교	40개교	
재학중 일경험 확대	강소기업 탐방	11000명	5000명	
	강소기업 체험	2000명	-	폐지
	중소기업 취업연수제	-	6000명	신설

취업지원관

학교에 직업상담사,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취업전문인력 채용
⇒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현황 및 계획

- '15년 73개 대학 -> 68개교 (5개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
- '16년 38여명 내외 (7.5억)

운영방식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관 인력풀에서 취업지원관 채용

지원내용

- 인건비의 60% 지원
 - * 대학매칭비율: (3년 이하) 60%, (4년차) 50%, (5년차) 40%,
 - * 정규직 채용시 20% 추가 지원
 - * 대학별 7천만원 한도 지원

4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설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1~)
"대학에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계획

- '15년 53개 대학 -> 44개 대학 (9개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
- '16년 35여개교 (17억)

운영방식

- 대학-수탁기관(민간) 컨소시엄 구성
 - * 대학: 시설·장소 제공, 수탁기관: 컨설턴트 배치·운영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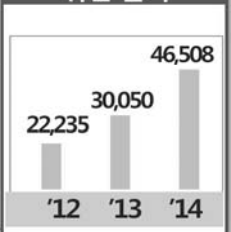
컨설턴트 인건비 월 250만원/인

운영 경비 연 800~1,000만원

취업프로그램비 연 500~600만원

- 기간별 차등: 3년이하 60%, 4년 50%, 5년: 40%, 6년차: 30%
- 인건비 차등: 2~5명
(평가우수대학: 3명, 재학생 7,500명 이상: 최대 5명)

취업 실적



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들이 고용센터 등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 '15년 21개 대학
- '16년 40여개교 (100억)

운영방식

- 대학 자체운영 혹은 대학-민간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 운영

지원내용

컨설턴트 인건비 총 사업비의 40%~60%

프 로 그 램 비 총 사업비의 35%~55%

운 영 비 총 사업비의 5%

- 프로그램 운영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시행(2년)에 대한 평가 후 계속지원(3년) 여부 결정

6

청년강소기업 탐방

청년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 제공

현황 및 계획

- '15년 11,000명
- '16년 6,000명 (6억), 위탁운영비 1인당 10만원

운영방식

-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

사업성과

[조기취업] 취업소요기간 6.3개월 (비경험자 대비 8개월 단축)

[추진성과] 참여자(6,390명) 대상 설문조사

취업에
도움
(83%)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73%)

강소기업
사이트
이용의사
(92%)

* 자료: 「청년고용대책 현장점검 보고서」 '14.12.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취업연수 지원

일경험의 기회가 적은 인문계 재학생 등에게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 제공

현황 및 계획

-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폐지,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신설
- '16년 5000명 (30억), 위탁운영비 1인당 60만원

운영방식

- 사업주 단체 등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

진로지도

2박 3일
취업연수

청년
고용정책
연계

취업성공

대학의 역할

-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모설명

1. 추진배경

대학 내 청년 취창업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정책체감도가 매우 낮음

“학생들은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대해 잘 몰라요.
처음 어딜 방문하냐에 따라 제공 받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14년 청년위원회 찾아가는 투어버스’

대학 재학생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관	산학협력단 (LINC 사업단)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대학기업가(창업) 센터	종합인력개발 센터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중기청	대학내 행정조직
취업 전문인력이 진로지도, 취업 알선	R&D 및 수익사업 위주 취업지원은 부수적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여대생으로 특화	대학 내 창업지원 사업 통합 운영	학교생활 지원과 진로서비스 제공
140개	86개 (LINC)	17개	7개	대다수 대학

부처별로 각기 분절적 서비스 제공
⇒ 수요자(학생)를 위한 전담 기구 및 종합 서비스 부재

10

1. 추진배경

청년들이 고용센터 등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학내에서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관을 통합·연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추진



11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1

-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 연계,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2

- 진로지도 강화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3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정부지원 인턴, 취성패, 직업훈련 등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사후관리
* 대학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4

-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고용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정책의 핵심전달체계 기능 수행

※ 동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 되지 않아야 함

12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1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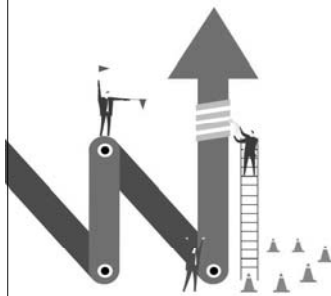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 연계, 총괄·조정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원 등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 취업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 취업전담교수제 또는 (가칭) 역량강화 포인트제 추진
-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및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 관리시스템 운영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2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 ▶ 적성·전공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
- 직업심리검사, 핵심역량 진단 등 활용
- ▶ '진로지도' 필수 교양과목 지정
- ▶ 계열별·분야별 진로지도
- ▶ 「진로상담가이드」개발, 「취업지원가이드」보완
- ▶ 교수 및 직원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3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와 청년고용정책 홍보

훈련·능력개발 단계

- 인문계 전공자 및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 강소기업 탐방, 현장실습, 인턴, 일학습병행 등 일경험 기회 확대
- 창업교육 연계·효율화
- 취업캠프 등 취업역량강화

취업알선 단계

- 워크넷을 활용 취·창업지원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모집 및 운영기관 통보
- '찾아가는 만남(기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적극 추진
-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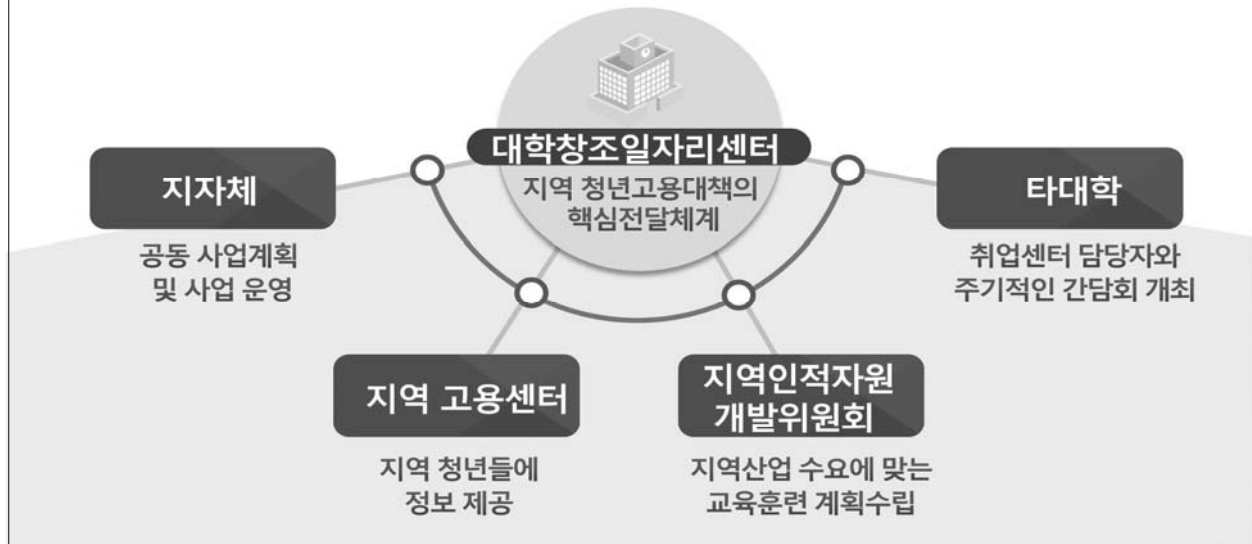


사후관리 단계

- 졸업생 취업DB 구축 및 취업경로 분석
*전공, 산업, 지역, 직무 등 분류기준 다양화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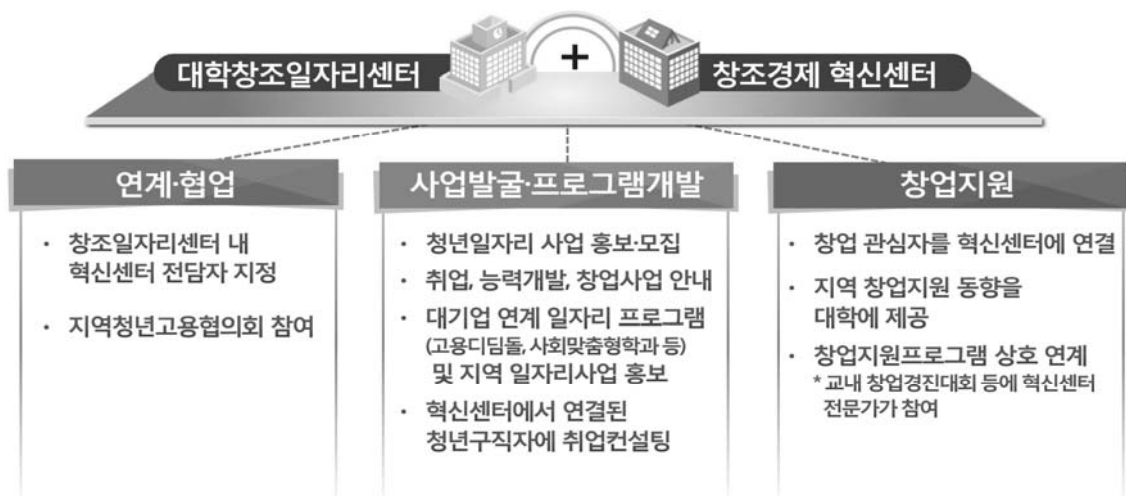
4 지역 청년 고용거버넌스구축·운영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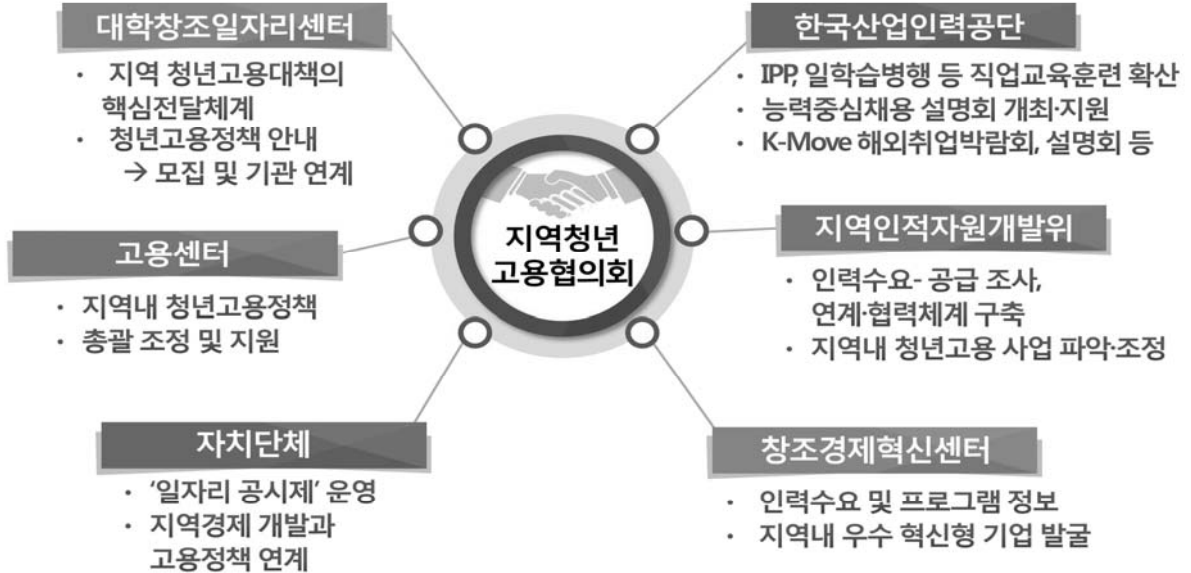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업

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와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연결



2. 창조일자리센터 주요 기능

주체별 역할



3. 사업내용

지원기간	5년 - 2년+3년, 2년은 인프라 구축기,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대학	40여개 대학 (신설 19개교)
사업규모	5억원/년 (1개교 당 평균)
지원방식	정부 50% 지자체 25% 대학 25% 원칙 - 대학과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50%는 협의하에 비율 조정 가능
지원내용	인건비 40-60% 프로그램비 35-55% 운영경비 5%

4.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지원
가능하나, 분교로 인가받지 않은 캠퍼스는 해당 대학에 포함되므로
별도 지원 불가
- ▶ '15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

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므로
대학 단독으로 신청 가능(심사시 우대)

※ 필요시 대학은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가능

20

5. 신청 및 심사

신 청

- 신청대학은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기간 : '15.12.16(수)~'16.1.12(화) 18:00

심 사

- 기초 검토: 관할 고용센터
- 1차 심사: 주요 8개 청(지청) 관내 대학 평가
- 2차 심사: 본부에서 우선협상대학선정

21

5. 신청 및 심사

심사기준

- 사업계획이 창조일자리센터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

평가지표

- 취창업지원 인프라 현황(20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10점)
- 진로지도서비스 강화(15점)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20점)
- 해외취업 지원역량(10점)
-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15점)
- 외부기관과의 협업(10점)

가 점

- 여대생직무훈련 계획의 충실도(2점)
- 창업지원 계획의 충실도(2점)
- 동아일보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및 우수대학(2점)

22

6. 기존 사업과의 관계

기본 방향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의 변화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창조일자리센터

-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취업지원관' 지원대학 수는 점차 축소

참고

▶ 취업지원관은 지원연한이 남은 대학에 한하여 기존 사업신청 가능

▶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신규, 지원연한이 남은 대학 신청 가능

-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의 확대, 전환이 목표
- '16년 신규진입대학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5년차까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23

감사합니다

2



2016년 사업 운영대학 선정 공고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고문

2016년도 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

1 사 업 목 적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목적으로 하여
 - 저학년부터 학과별로 특성화된 진로지도를 실시
 - 청년내일찾기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현장실습, 해외취업지원 등을 재학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역량 제고
 - 해당 대학의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또는 인근 대학의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정부지원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 사후관리(졸업생 지원) 등 취업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역 청년 고용촉진 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활용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

- ◆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관 기능 확대 및 개편 추진
 -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분절된 대학 내 취업지원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인턴, 각종 직업교육·훈련, 일학습병행,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 창업교육·지원 등 각종 청년고용사업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 * 맞춤형 서비스 직접 제공, 인턴, 훈련,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기관 연계
 - (진로지도 강화) 학과 교수와 협력하여 저학년부터 학과별 특성화된 진로지도 실시, 진로지도 관련 과목 의무수강 등 진로지도 대폭 강화
 - (서비스 대상 확대) 취업지원조직의 인적·물적 규모 확대를 통해 4학년에 치중된 서비스를 저학년, 졸업유예생, 졸업자, 타대생까지 적극 제공
 - (지역 유관기관 협력) 자치단체, 지역 인자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기반 고용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협력
 - 권역별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 등 청년밀착 홍보의 중추 역할

2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016년 3월 ~ 2021년 2월 (5년)
 - * 사업기간 5년(사업시행 2년에 대한 평가 후 계속지원(3년) 여부 결정)
- 지원 대학 : 전국 19개교 (기존 대학 포함시 총 40개교)
- 사업비 규모 : 47.5억원
 - * 연 사업비 기준 1개소 당 평균 5억원 수준이며, 지원 금액은 '16년 3월부터 '17년 2월까지의 금액임
 - * 매칭 비율은 정부 50%, 대학 25%, 지자체 25%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50%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의 하에 비율 조정가능
- 지원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를 지원하되, 프로그램 운영비를 중점적으로 지원

지원 항목	지원 기준
인건비	- 컨설턴트 인건비: 총 사업비의 40~60% 이하 * 컨설턴트 5~9명 이상 수준 채용 * 컨설턴트 자격은 2015년 대학취업지원관 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취업지원관 인력풀 심사 요건에 준함 * 취업지원인력으로 교원을 신규 채용(정규직)하는 경우 심사시 우대
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5~55% 이상 * 프로그램 운영비,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비,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진로지도 관련 전문자료 구입비, 청년고용 정책 홍보비 등
운영비	- 운영경비: 총 사업비의 5%이내 범위 * 시설의 유지 및 보수·증축 및 개축, 임대, 자산 취득성 경비 등을 제외한 운영경비 및 소모품비 등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대학 내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기능 연계에 필요한 사항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연계체제구축(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차장급 이상 배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원 등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등 취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수요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일학습병행제 확대 - 취업전담교수제 또는 (가칭) 역량강화 포인트 적립제 추진 - 취업강화를 위한 입학, 재학, 졸업단계의 학사제도 개편 -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및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 관리시스템 운영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 기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진로지도 강화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 - 적성·전공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 * 주요 직업심리검사 및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등을 활용 - 진로지도 교과목을 교양과목 지정 필수화 -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대폭 보강 * 계열별·분야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진로상담가이드」개발, 「취업지원가이드(전문대/일반대)」보완 - 교수 및 직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기타 대학에서 진로지도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정부지원 인턴, 훈련,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등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모집 활성화, 참여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훈련·능력개발 단계 - 인문계 전공자 및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 인문계 전공자의 이공계 복수전공 허용 및 융합교육 확대 - 강소기업 탐방, 현장실습, 인턴, 일학습병행 등 일경험 기회 확대 - 창업교육 연계·효율화 및 취업캠프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 학생, 교수, 인근 청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설명회 실시 - 청년고용정책, 학교내 취·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제고노력 ③ 취업알선 단계 - 워크넷을 활용하여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에 대한 취·창업지원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참여대상자 모집 및 운영기관으로의 연계 - 단과대, 학과단위 등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남(기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적극 추진 - 해외취업지원(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등) ④ 사후관리 단계 - 졸업생 취업DB 구축 및 취업경로 분석 * 전공, 산업, 지역, 직무 등 다양한 분류기준을 통해 대학의 취업현황 파악 ■ 기타 대학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 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대책의 핵심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학 소재 자치단체, 혁신센터 등과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 지역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본교 재학생, 졸업생 이외의 타대생 등 지역 청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의 타대학 취업센터 담당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 기타 대학에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지원 가능하나, 분교로 인가받지 않은 캠퍼스는 해당 대학에 포함되므로 별도 지원 불가

※ '16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

◆ 다만, 아래 대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① '15.12.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학과와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 ②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③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D등급 이하, '15.8.3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발표)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학 자체적인 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 (심사시 우대)

- 대학 자체적으로 기존 취업지원 인력 이외에 취업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필요시 사전에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사업 참가 신청일 기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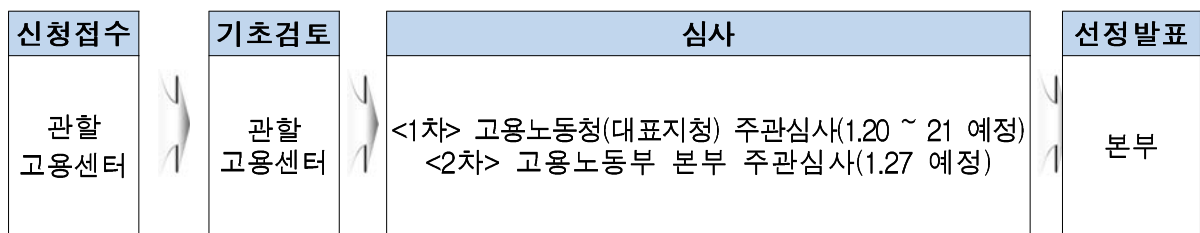
심사절차 및 선정발표

○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음

- (기초검토) 관할 고용센터의 검토의견서 작성, 필요시 현장실사
- (1차 심사) 주요 8개 고용노동청(대표지청)*은 사업계획발표회 등을 포함하여 관내 대학을 평가, 순위 결정

* 서울, 중부, 경기, 강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차 심사) 검토의견서와 순위의견서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우선협상대학 선정



- (우선협상대학 발표) 2016. 1. 27(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사업계획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

- (심사지표) 취·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계획, 진로지도서비스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해외취업지원역량,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
- (가점사항) ①여대생직무훈련 관련 계획이 충실하면 2점 가점, ②창업지원 관련 계획이 충실하면 2점 가점, ③'15년 동아일보의 대학평가에서 청년드림대학 최우수·우수대학으로 선정시 2점 가점

※ 심사지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사업의 대상, 현황, 목표치 등을 명확하게 제시

사업 내용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30)	취·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20점)	■ 취·창업지원 관련 총장 등 대학의 의지와 비전수립 -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에 대한 총장 등 대학 교직원의 사업의지와 대학 인재상 및 목표 등이 명확한가? ■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인력, 편성 예산 등 - 조직, 인원수, 부서위상, 센터장의 지위, 직원의 경력·근속 연수·자격증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 사무실 위치, 직원 1인당 학생수, 전체 예산 중 취업지원 관련 조직의 예산금액 등 ■ 교과목 및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등의 적절성 - 진로지도, 취·창업지원관련 교과목, 프로그램 편성, 교수-교직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등 ■ 취업지원 사업 수행 능력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유사사업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 (10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이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 대학내 취·창업지원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대학창조일자리 센터장 지위(교무의원급 이상), 설치위치, 대학 내 조직기구의 위상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대학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 취업지원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학교 측의 인력·시설 확충 등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및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확대 등) - 학생 종합 경력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진로 지도 강화 (15)	진로지도서비스 강화 (15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체계적인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학년별, 전공별, 유형별 등 맞춤형 진로지도서비스 제공 - 적성, 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주요 심리검사), 진로 지도 교과목을 교양과목 필수 지정 등을 통하여 저학년 때부터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교수, 교직원 등의 진로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 전담교수 배치 등 교수 및 교직원의 적극적인 진로 취업지원 참여가 계획되어 있는지?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의 실시가 가능한가?

사업 내용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45)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0점)	※ 자율 성과목표계획서를 포함하여 심사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 달성이 가능한가?(타대생 취업지원서비스 포함 필수) - 취업관련 교과목 개편, 취업박람회, 취업강좌, 취업캠프, 현장 실습, 취업동아리 지원 등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정부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정부지원 인턴, 취업아카데미,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등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인원에 대한 목표설정 및 실현이 가능한가?
	해외취업 지원역량 (10점)	■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해외취업 전문인력 배치,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가능한가? ■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관련 상담, 경로 설정 등 진로지도, 주기적인 강좌(특강) 진행, 해외취업 관련 학과목 개편 및 학점 인정 등이 가능한가?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15점)	■ 대학 내 정책 전달체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홍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 자체 프로그램 등 정책 체감도를 알 수 있는 인지도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가?
지역청년 거버넌스 (10)	외부기관과의 협업 (10점)	■ 자치단체, 고용센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대학, 기업 등과의 협업·연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교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및 연계방안의 구체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취·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인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가점	6점	■ 여대생직무훈련 계획이 충실한 경우(2점), 창업지원 계획이 충실한 경우(2점), '15년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최우수·우수대학(2점)

<자율목표 성과계획표>

구 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수	참여인원, 횟수 등(참여율)		
				'15년 현재	'17년 2월말 달성 목표	'18년 2월말 달성 목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정 부 청고대 참여원수 (필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강소기업 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해외취업지원				
		(K-Move스쿨 등)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청년 고용채 홍보수 (필수)	(IPP)				
		기타				
		찾아가는 설명회				
	대 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조사				
		기타				
		취업박람회				
		취업(기업)설명회				
		취업관련 교과목 운영				
		취업관련 강좌(특강)				
		취업캠프				
		인문계 전공자				
		취업역량강화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현장실습				
		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현장견학				
		선후배와의 만남				
		취업정보자료집 발간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로(취업)지도, 상담					
	인적성, 심리검사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					
	진로지도 강좌(특강)					
	대학생 핵심역량진단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기타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취업전담교수제				
		역량강화포인트 적립제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인원				
		인문계 전공자				
	담당 자 역량 강화	융합교육 인원				
		기타				
		교수 교육, 연수				
	사후 관리	컨설턴트 등 교육, 연수				
		기타				
		졸업생 추적관리				
		외부 교육비지원				
기타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5. 12. 16(수) ~ 2016. 1. 12(화) 18:00
- 제출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 신청방법 :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및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등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신청 공문 1부
 - 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증명서 1부(공문, MOU 등)
 -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무료직업소개사업자) 사본 1부 (민간컨소시엄 구성 시)
 - [서식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예산집행계획서 1부
 - [서식4] 대학의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경력 1부
 - [서식5]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부 (민간컨소시엄 구성 시)
 - * 각종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25부 및 제출서류 file을 USB에 담아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 받아 작성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1350)

6**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12. 17(목) 14:00~

○ 장 소 :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서의필홀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48)

참고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서 발표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15.8.31, 교육부)

구분	학 교 명
4년제 (131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협성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구분	학 교 명
전문대 (102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 학 명 은 가 나 다 순 임

[서식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신청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대학유형	①2.3년제 ② 4년제		e-mail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취업지원부서	(책임자 성명)		(담당자 성명)		
	재학생수	명		보건의료계열 학생수	명(%)	
	취 업 률	전체 % *'14년 12.31. 기준 취업률(교육부 대학알리미 '15.12월말 발표)				
민간전문기관 현 황 (컨소시엄 구성시 작성)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담 당 자 (e-mail)	
	사업체종류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				
	4대보험가입여부	① 고용() ② 산재() ③ 의료() ④ 연금()				
총 사업비 구성	정 부 지원금	천원 (%)	지자체 부담금	천원 (%)	대 학 부담금	천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 후 25부 첨부)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신청서 2. 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증명서 3.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 4. 예산집행계획서 5.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 경력 6.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7.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8.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 7.8번 서류는 민간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시 작성						

□ 취업지원 관련 대학의 재정지원 현황(인건비, 사업비 등)

※ '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명, 백만원)

명칭	소속기관	인원	인건비총액	사업비 총액	비고

□ 대학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센터장의 지위,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15년도 예 산	대학 총예산 (A)	백만원	취업지원부서 예산 (B)	백만원	비율 (B/A)	%
운영계획	※ 민간컨설턴트 투입에 따른 기존 취업지원부서 근무인원 정(현)원 임의 조정 방지대책,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Ⅱ. 사업추진계획('16년.3월 ~'18년.2월)

- ※ 공고문 본문 “1.사업 목적”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1p) “2.사업 내용”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사업내용(3p), 2015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을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2년간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상세히 작성
-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사업목표('15년~'17년)

- ※ 계량화된 목표 제시

○

-

<자율목표 성과계획표>

- ※ 필수기재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시이므로 대학의 실정에 맞게 작성
- ※ 성과계획표는 평가에 직접 관계되므로 작성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 대상자 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수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와 직업훈련은 등은 4학년 재학생의 수를 의미하며, 진로취업지도상담은 전체 재적학생 수 등을 의미함(학교 및 지역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는 다를 수 있음)
- ※ 참여율은 참여인원을 대상자수로 나눈 비율

구 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수	참여인원, 횟수 등(참여율)		
				'15년 현재	'17년 2월	'18년 2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정부청년고용대책 참여인원 (필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강소기업 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해외취업지원				
	청년고용채널보수 (필수)	(K-Move스쿨 등)				
		대학형 일학습병행제(IPP)				
		기타				
	대학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시)	찾아가는 설명회				
		인지도 조사				
		기타				
		취업박람회				
		취업(기업)설명회				
		취업관련 교과목 운영				
		취업관련 강좌(특강)				
		취업캠프				
진로지도 프로그램 (예시)		인문계 전공자				
		취업역량강화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현장실습				
		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현장견학				
		선후배와의 만남				
		취업정보자료집 발간				
		진로(취업)지도, 상담				
취업지원구축 (예시)	제도개편	인적성, 심리검사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				
		진로지도 강좌(특강)				
		대학생 핵심역량진단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담당자역량강화	기타				
		취업전담교수제				
		역량강화포인트 적립제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인원				
사후관리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인원				
		기타				
		교수 교육, 연수				
		컨설턴트 등 교육, 연수				
사후관리		기타				
		졸업생 추적관리				
		외부 교육비지원				
사후관리		기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계획('16년~'18년)

-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등 연계체제 구축(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처장·교무위원급 이상으로 배치) 및 대학 내 청년고용협의회 설치·운영 등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위치(공간규모, 학생 수, 학교여건 등 고려)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한 학교 측의 인력(행정인력 등), 집기, 부품 등 편의시설 제공 계획
- ※ 학생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측 지원방안

○

-

☐ 취업인프라 개선('16년~'18년)

-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사항
- ※ 교수, 교직원, 민간컨설턴트 등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
- ※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 반드시 포함
- ※ 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

-

○

-

☐ 진로지도 서비스 강화('16년~'18년)

○

-

☐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16년~'18년)

○

-

☐ 해외취업지원('16년~'18년)

○

-

○

-

☐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16년~'18년)

○

-

○

-

☐ 외부기관과의 협업('16년~'18년)

※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과의 협업계획

○

-

☐ 기대효과('16년~'18년)

※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

-

[서식 3]

예 산 집 행 계 획 서

① 총사업비 : 5억원 기준으로 작성 (① + ② + ③)

② '16년도 사업예산 : 만원

- 정 부 지원금(①) : 천원(%)

- 지자체 부담금(②) : 천원(%)

- 대 학 부담금(③) : 천원(%)

③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정 부 지원금	지자체 부담금	대 학 부담금	
총 계						
인건비	소계					
프로그램	소계					
운영경비	소계					

[서식 4]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경력

※ 대학이 참여한 청년취업과 관련 있는 사업을 기재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작성

1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1) 2015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금액	주요 수행업무

(2) 2014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금액	주요 수행업무

(3) 2013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금액	주요 수행업무

2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금액	주요 수행업무

[서식 5]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 자료 첨부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공고문

2016년도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취업지원관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 사업분야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이 캠퍼스 내에 민간전문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민간전문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 대학과 민간전문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대학 : 35여개 대학<17억>
- 사업운영기간 : 2016. 3월 ~ 2017. 2월
- * 지원기간: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의 확대 전환이 목표이므로 '16년 신규진입 대학은 기존 참여대학과 달리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5년차까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대학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38여명 내외<7.5억>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부터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6. 3월 ~ 2017. 2월
- * '16년 신규 진입은 제한

◆ 신청자격

-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 학교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16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할 것

○ 다만, 아래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15.12.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②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③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D등급 이하, '15.8.3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발표)

④ '15년 지원대학 성과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16년 사업 참여 제한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동아일보의 '15년 대학평가결과 (최)우수드림대학 평가를 받은 대학은 지원대학 선정 시 우대

◆ 지원내용 및 조건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 대학청년고용센터 민간전문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다만,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의 40~60%이상 및 민간컨설턴트의 사업주 사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 ※ 1~3년차 지원대학은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 부담
- ※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15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6년 사업 참여제한
- 컨설턴트 인건비는 월 250만원(정부지원 150만원, 125만원, 100만원), 운영비는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용은 5~6백만원 한도로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컨설턴트 배치인원은 최소 2명을 기준으로 지원

<대학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 인건비는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을 심사하여 1개 교당 연간 최대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일부를 부담하되 2~3년차 지원대학은 40%, 4년차는 50%, 5년차는 60% 이상을 부담해야 함
- * 보수,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퇴직급여 등
- ※ 지원기간은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을 합산한 기간(동일년도에 동시 2가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1년차로 산정)
-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기준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받은 대학 포함)하는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인건비 매칭비중을 20% 감하여 지원
- '15년도 사업평가결과 우수(A)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건비 매칭비중을 10% 감액, 미흡(C)평가를 받은 대학은 '16년 사업 참여제한

◆ 제출서류

<대학청년고용센터>

- ① 지원 신청서, ②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서, ③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④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⑤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⑥ 민간전문기관의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운영계획 작성 시 저학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취업전담교수제 등 학과 교수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참여방안 포함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대학취업지원관>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③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④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⑤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서류*

※ 향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근로계약서, 채용예정인 대학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채용확정 문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5.12.17(목) ~ 2016.2.5(금)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대학의 경우 ‘대학청년고용센터’와 ‘대학취업지원관’ 중 선택하여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6.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 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 학교별 개별통지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일 시: 2015. 12. 17(목) 14:00~
 - 장 소: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서의필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1350)

2016년도 대학취업지원관 사업지원 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E-mail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취업지원부서	(책임자)		(담당자)		
	재학생수			보건의료 계열 학생수		
	취 업 륜	전체 %, 정규직 %				
취업지원관 채용계획	채용규모	명				
	채용형태	① 정규직 ② 계약직				
	채용예산	천원 (100%)	정부 지원금	천원 (%)	대학 부담금	천원 (%)
2016년도 대학취업지원관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 지방고용(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 취업지원관 성과목표, 채용계획, 활용계획 등 포함 2.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3.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4.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서류(정규직 채용(예정)의 경우에 한함)						

2016년도 대학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 학유형	① 2·3년제 ② 4년제	전 화 번 호	
	재 학생 수			
성 과 목 표	※ 취업지원관 채용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제시			
채 용 계 획	※ 채용규모, 채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기술			
취업 지원관 활용계획	※ 취업지원관 학내 역할 부여, 주요 실행계획, 훈련계획, 발전계획 등 기술			
기 타	※ 학교별 특성화된 계획이 있으면 추가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내 위상, 종합인력개발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 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16년도 예 산	대 학 총예산 (A)	천 원	취업지원 부서예산 (B)	천 원	비율 (B/A)	%
운영계획						

* 전문인력: 취업진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관련 업무 3년 이상 자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 서 식 2 】

2016년도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 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e-mail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취업지원부서	(책임자)	(담당자)	
	재학생수	명	보건의료계열 학생수	명(%)
	취 업 륜	전체 %	정규직 %	
민간전문기관 현황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담 당 자 (e-mail)	
	사업체종류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		
	4대보험가입여부	① 고용() ② 산재() ③ 의료() ④ 연금()		
컨설턴트 채용계획	채용규모	명	채용예산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대학부담금	천원(%)
2016년도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사업에 위와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첨부) 1.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서 2.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3.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4.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요약서 첨부) 5.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 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전 화 번 호	
사업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대 학	설 치 계 획	※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 위치 및 규모,		
	지 원 계 획	※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대한 인원, 집기, 부품 등 편의시설 제공 및 학생들이 청년고용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측 지원 방안		
민간 전문 기관	사업 목 표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통한 사업목표 등 활용방안 기재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민간 전문 기관	사업 추진 계획	☐ 총괄 ☐ 기본방향 ☐ 세부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구인자·구직자 이용도 제고계획 · 지원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률 제고방안 · 동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방안 · 저학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설계, 취업전담교수제 등 학과 교수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참여방안 · 그 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의 계획 및 노력
	기대 효과	
	기타	

※ 별지 작성 가능

[서식 2-2]

대학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종합인력개발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 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16년도 예 산	대 학 총예산 (A)	백만원	취업지원 부서예산 (B)	백만원	비율 (B/A)	%
운영계획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취업지원관의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 할 경우 해당)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①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②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③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2. 사업수행 실적

①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2013년도

(2) 2014년도

(3) 2015년도

②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3. 2015년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현황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금액	주요 수행업무

※ 취업지원과 관련 있는 사업만을 기재

[서식 2-4]

사업 실적 요약서

사업체명 (컨소시엄 명)		접수 번호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 수행 실적			

3



2015년 정부청년고용대책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 진로지도 강화 및 융합 기술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경로 다각화 -**

15. 6. 24.

관계부처 합동

차 례

I. 추진 배경	71
II. 인문계 청년의 취업준비 및 지원 실태 ...	73
III.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76
1. 저학년부터 진로지도·역량향상 강화	76
2. 재학 중 융합기술교육·훈련 참여	79
3. 대학에서 졸업 전부터 취·창업지원	84
IV. 향후 계획	85
<참고 1> 2014년 취업진로사업 대학 실태조사 결과	86
<참고 2> 인문사회계 대학생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87
<참고 3> 인문계 대학(졸업)생 훈련적합 직종(안), 한국고용정보원	89
<참고 4> SW산업과 고용	90
<참고 5> 비전공자 대상 SW 교육훈련 프로그램(안)	91
<참고 6> 비전공자의 SW 분야 취업성공사례	93
<참고 7> 주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요	95

I. 추진 배경

- '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8% 안팎을 기록하다, '14년부터 가파르게 높아져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한 최고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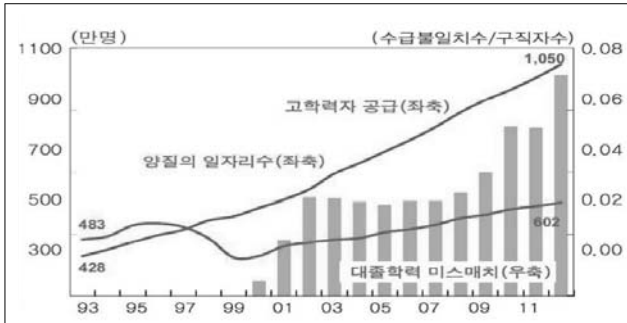
* 청년실업률(%): ('00.5) 7.5 → ('02.5) 6.5 → ('06.5) 7.1 → ('10.5) 6.4 → ('13.5) 7.4 → ('14.5) 8.7 → ('15.5) 9.3

- 일시적 요인이 컸던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최근에는 누적적·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청년실업률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

- 저성장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체된 반면, 높은 대학진학률('14년 70.9%)에 따른 고학력자 공급은 여전하여 청년 취업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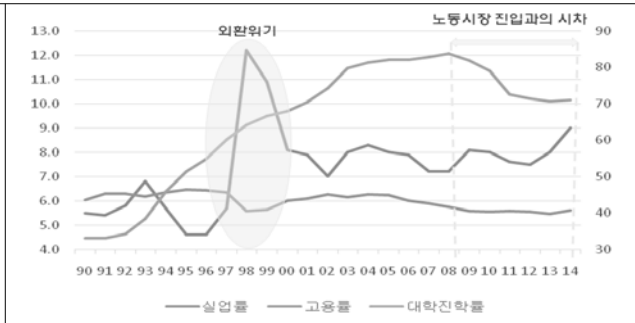
* 시간당 임금수준('13.6월): 대기업 정규직 100 > 대기업 비정규직 65.6 > 중소기업 정규직 53.8 > 중소기업 비정규직 36.7

< 양질의 일자리 수와 노동력 >



*박세준 외(2013)

<청년고용과 대학진학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 전체 실업률(15~64세, 4.1%)의 2.5배 수준으로, '12년부터 격차 확대, 고용률은 다행히 상승 반전했으나, 아직 40% 수준
- 학력·전공에 따른 미스매칭의 누적·심화로,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없는 대졸 실업자가 76천명으로 1년 새 2배 급증

*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없는 실업자(천명)

대졸이상: ('12.4) 35 → ('13.4) 36 → ('14.4) 36 → ('15.4) 76

고졸: ('12.4) 14 → ('13.4) 16 → ('14.4) 29 → ('15.4) 30

- 특히, 최근 전통적인 인문계 분야인 무역·금융 관련 업무까지 이공계 전공자를 채용하는 등 기업의 인력수요가 이공계 중심으로 변화
- * (무역·상사업) 단순 중개 → 글로벌 자원개발, 철강, 화학, 플랜트 건설
(금융업) 대면 영업 → 스마트 बैं킹 등 비대면 영업, 정보보안 강화
 - * '13년 4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 人文 / 理工 비율(중앙일보, '14.3월)
(삼성)20:80 (현대차)30:70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15:85 (SK)30:70
 - * '14년 현대차는 이공계 직무부문(개발, 플랜트)만 공채 실시,
인문계 직무부문(전략지원)은 수시채용으로 전환
- '13~'23년간 인문·사회·예체능 등 계열은 기업의 인력수요보다 184천명 초과공급 전망이나, 대학의 관련 계열 정원은 오히려 증가
- * 전공별 인력초과수요(천명, '13~23년, 한국고용정보원)
(인문사회)△61 (예체능)△97 (사범)△26 (자연)△134 (공학)277 (의학)37
 - *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비교('99년→'13년, 교육기본통계)
(인문, 사회, 예체능, 교육) 170,458명 → 191,445명(20,987명 12.3%)
(공학, 자연, 의약) 140,782명 → 149,535명, (11,835명, 8.4%)
- 이에 따라 인문계 전공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이 누적, 체감 취업난 심각
- *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중/취업률(%), 2014년 교육기본통계)
(인문) 13 / 45.5, (사회) 30 / 54.1, (교육) 5 / 48.7, (공학) 23 / 65.6,
(자연) 12 / 52.3, (의약) 6 / 72.1, (예체능) 11 / 41.4
↳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이 전체 졸업자의 59%
- 한편, 기업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문학을 주목하고, 채용 시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나 인문계 전공자 취업과는 무관
- * (아이폰, 페이스북) simple·fun·social network라는 인간 본연의 욕구 충족
: 통계적 기법으로 미래예측 곤란, 상품의 기술·가격 균질화
⇒ 인문학적 통찰력·상상력으로 미래경영환경 예측, 조직의 창의성 제고, 제품 생산·디자인에 인간의 본질적 needs 반영 ⇒ 새로운 가치창출, 기업 경쟁력 제고
 - * HRD 3.0시대, 대기업 채용 3대 트렌드…형식파괴, 직무역량, 인문소양 ('15.3.11. 헤럴드 경제), 인문학 열풍?…인문대졸업생엔 '냉풍'('14.10.17. 세계일보)

Ⅱ. 인문계 청년의 취업준비 및 지원 실태

청년

체계적 진로설계·정보 없이 막연한 취업준비

- 중·고교 시절 진로탐색 기회 부족으로 진학-취업이 연계된 진로 선택이 아니라 성적과 흥미 등으로 전공을 선택

“처음 대학에 올 때는 취업 이런 건 잘 생각 안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수능 성적 맞춰가지고....그래도 문학을 좋아하니까....”
(「인문계 실태 및 취·창업 교육지원 방안」 15.2월, 직능원)

-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복수전공(또는 부전공) 이수로 학습 부담이 큰 반면
 -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비율('09~'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인문) 54.8%, (사회) 33.5%, (공학) 11.6%
- 직업 탐색, 구체적 진로목표 설정 과정이 미흡한 채 막연히 취업준비에 나서,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는 대학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보다 '스펙쌓기'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준비

< 대학생의 지난 1년간 진로지도 경험과 향후 의향 (2011, 청년패널조사) >

조사자수 (명)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비율	받은 진로지도의 평균횟수	진로지도에서 도움 받은 비율	향후 진로지도를 받을 의향	진로지도 유경험자가 진로지도 받을 의향
2,351	6.2%	1.6	61.3%	30.3%	75.2%

- 일부 대학에선 인문계 학생들의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복수전공 선택 증가
 - * '인구론'에 지쳐 공대로 물려가는 문과생들(한국경제, '15.4.17)
 - ↳ (서울대) '컴퓨터공학' 복수전공 문과계열 학생 수가 '12년 1명에서 '15년 22명으로 증가('12년 1명 → '13년 4명 → '14년 5명 → '15년 22명)
 - ↳ (성균관대) 문과출신 공대 복수전공자 '12년 5명에서 '14년 57명으로 증가, 이 중 38명(67%)이 SW,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

- 취업률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부상했으나, 대학은 여전히 모집률·충원률이 우선, 취업지원조직의 위상과 역량은 여전히 부족

* 대학의 취업관련 지원금은 교비에산 대비 약 0.93%에 불과, 종사인원도 행정지원 직원의 10% 수준 (참고1: '14년 취업진로사업 대학 실태조사 결과)

- 시스템에 따른 체계적 지원보다는 총장의 의지에 따라 조직 위상·기능·지원수준에 큰 차이, 인력·예산 부족으로 소수 학생에 대한 단순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

구 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평균 참여인원	참여율(%)
정보제공 프로그램	현장견학	692	9.3
	선후배와의 만남	732	9.8
산학연계형서비스	인턴십 및 직장체험	213	2.9
	산업체 요구 파악 및 취업처 발굴	465	6.2

* 참여율: 평균참여인원수 / 대학평균 재학생 수(7,466명) (취업진로사업 대학 실태조사, '14.10월)

- 진로지도 교과목이 주로 선택교과로 편제되어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콘텐츠도 부족하여 효과성 제고에 한계

“직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운이 좋아서 수강할 수 있었지만, 빨리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마감돼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친구들도 많아요. 전공필수로 지정되면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4년제 대학 재학생)

대 학	■ 최근 직업심리검사 6종, 직업진로탐색자료 14종, 취업지원프로그램 12종 등 개발, 취업역량프로그램도 '14년에 고용센터만 보급
중·고교	■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전체 중·고교의 94.5%(5,520개교)에 5,208명 배치('11년~'14년), 진로교육 콘텐츠 '12년 55종, '13년 18종 개발

- 특히,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취업률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수 및 취업지원 부서의 특화된 진로지도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 등도 공학계열이나 상경계열 관련직이 많아 인문계열 학생들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더 무관심

“전산과 등 공대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취업이 잘 되요. 인문계는 나름 협력할 회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시스템이 부족해요.”(인문계 실태 및 취·창업 교육지원 방안 152월, 직능원)

-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직장체험 등 ‘일 경험’을 쌓고 싶어도 인문계 전공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협소, 개인적으로 기회를 찾게 되니 열정페이 등 문제에 더 쉽게 노출

“취업지원센터에서 기업체 현장방문해서 참관하고 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문과 전공으로 개설된 현장실습이 없기 때문에 전공과 무관한 업종으로 가요. ... 인문계열에서 전공을 살려서 개인적으로 가는 인턴은 학점 인정이 안돼요. 휴학하고 가던, 알바형태로 가던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학점은 전혀 안 나와요”

“융합인재교육원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주로 공대쪽이에요. 인문대 관련은 거의 없어요.” (「인문계 실태 및 취·창업 교육지원 방안」 15.2월, 직능원)

정부 제각각 청년취업지원 정책 추진, 청년은...모른다.

- 각 부처가 대학생의 취업지원(일경험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 유기적 협력 및 연계 없이 제각각 추진
 - * 재학 중 직장체험·취업촉진 지원 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교육부), 이공계 인턴십(미래부), 중소기업 청년인턴(고용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기재부),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농진청),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미래부), 중소기업 인턴사원(경북), 기업인턴사원(대구), 중소기업 청년인턴(부산) 등
- 또한, 다수 대학 지원 사업이 이공계 중심으로 투자되는 실정
 - * 연구중심대학, 미래부 이공계 인턴, IPP 등
- 청년의 입장이 아닌 부처별·예산별로 사업을 설계·집행하여 체감도 및 효과성 저하
 - * 예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우수중소기업(강소기업)을 지정·홍보하나,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신뢰도 저하 가능성
(산업부 희망이음프로젝트 2,457건, 중기청 으뜸기업 1,028건, 서울시 52건 등)
- 청년층은 고용센터를 꺼리고, 대학의 진로지도·취업지원 관련 기능도 여러 기관으로 분절
 -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체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청년정책이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前대학총학생회장, ‘15.5월 청년고용특별위원회)

Ⅲ.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기본 방 향]

- ❖ 저학년부터 전공별 직업경로에 기초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
→ 조기에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 준비
- ❖ 유망 성장 업(직)종 중 인문계 친화적 업(직)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융합교육·훈련 기회 확대 → 인문계 전공자의 진출 분야 확대
- ❖ 대학을 통해 졸업 전부터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기간 및 비용 감소, 청년고용정책의 체감도·효과성 제고

1 저학년부터 진로지도·역량향상 강화

↳ 교육부·미래부·고용부 등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의 요건에 반영하거나, 평가지표 등에 반영

- 청년이 기업의 인력수요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을 유도하고, 대학 외부의 진로지도 프로그램(한고원 인증) 참여 확대 검토
 - * (가칭) 청년고용⁺센터의 지원 요건으로 추진
 - 신입생 설명회 등을 통해 교내외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지속 안내 및 참여 독려
 - 개별 학생의 진로지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학교에서 인증 포인트 부여, 각 학년말 누적 포인트에 따라 장학금 지급(가칭 '역량강화 포인트제'), 학생의 자발적 참여 촉진
 - * 전주대·한남대·한신대·삼육대 등 유사사업 추진 중

한신대: 인재육성 포인트 장학금

-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환불 받는 장학 제도(2008년~)로서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기여
- 포인트 종류: 봉사·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학업, 자기개발, 어학, 취업 프로그램 수료, 자격증 취득 등
- 교비 약 1억원 내외소요, 매년 약 4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 인문계 등 전공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가칭 ‘전공별 취업맵’)을 대폭 확충하여 진로지도의 효과성 제고

- ‘인문계열’부터 학과별로 진출 가능 분야, 직무 내용, 분야별 전공과목 이수 경로, 필요자격 등을 구체화하여 계열별·분야별 직업경로 모형 개발 및 정보 제공(한고원, ‘15.10월~)

문화·민속·미술사학	■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이상 큐레이터, 문화강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자, 문화재 감정사, 공연기획자, 미술평론가, 문화재 분석원, 인문학 교수 등 ■ 타분야 융합 문화마케터, 무형유산권관리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재디지털 복원가, 다문화코디네이터 등
언어학	■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이상 언어치료사, 광고홍보전문가, 브랜드메이커, 카피라이터 ■ 타분야 융합 통신공학기술자, 음성처리전문가, 음성인식UX디자이너 등

- 교수용 진로상담 가이드 개발(‘15.3월), 대학 취업지원 로드맵 개정(‘15.6월), 등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확충·보급(한고원)

□ 청년들이 가장 긴밀히 접촉하고 신뢰하는 교원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 강화 지원

- 교수·직원 대상 진로지도·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 관련 연수 확대
 - 권역별 또는 대학 단과대·학과 단위로 맞춤형 교육 컨설팅 추진(연수교육과 연계)
- 대학에서 과별·단과대별로 운영 중인 취업전담교수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15.하)
 - * 취업전담교수제 운영여부 조사 결과(‘15.1월, 138개 대학), 65개 대학(47.%)에서 3,200명 규모로 운영 중

□ 학교-기업현장을 오가며 직무역량 중심 취업준비가 이뤄지도록 재학 중 일경험을 내실화·확대하고, 자율적 이력관리 지원

○ 재학 중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직장체험·인턴 등 여러 기관의 관련 사업을 정비하고, 기회 확대 추진

*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 방안 연구」(‘15.3~)

- 일 경험·직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직무체험형)과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취업연계형)을 구분하여 방안 마련 (★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구체적 내용 반영)

* 근로자성 판단 등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5년 하)

❖ (직무체험형)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기업·청년 참여 지원

❖ (취업연계형) 근로자 노동권 보호 강화, 정식 채용 연계 지원

- 특히 인문계 분야 특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방안 마련, 인문계 전공자가 직장체험 등 직무경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확대

○ 교과이수, 학점 등 학사관리에 더하여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및 직장체험 활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확산

* (가칭) 청년고용⁺센터의 지원 요건으로 추진

- 학생 스스로 교수 및 컨설턴트와 소통하며 이력을 관리, 자신의 스토리^{*}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원

* 입학 → 진로 탐색 →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 취업역량 강화 → 사회 진출

한남대: Hannam Career Navigation System

-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관리되는 경력관리 프로그램
- 기 구축된 DB, 상담, 교육관리 시스템 기능 등과 연동
- 진로상담, 학생생활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과장, 멘토교수, 취업 전담교수 등이 상담내용을 공유, 개인별 핵심역량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진로/취업 관련 부서에 최적화된 시스템

↳ 교육부·미래부·고용부 등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의 요건에 반영하거나, 평가지표 등에 반영

□ 대학교육 등이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

- (학생 수요 맞춤형 학과 운영) 인문학과와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을 학생 수요(학문후속세대 성장, 취업희망학생) 맞춤형으로 개편·운영토록 지원
 - 다양한 인문교육 트랙 마련,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등에 있어서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 철폐
 - 경상계열 등에 집중되어 있는 복수전공(부전공) 분야를 인력수요가 많은 이공계 분야 등으로 확대 유도

한동대: 복수전공 의무제

- 모든 학과가 복수 전공 의무(인문·사회 + ICT 분야 복수전공 많음)
- 복수전공을 성적에 의해 제한하는 타 대학과 달리 희망하는 사람 누구라도 원하는 복수 전공을 선택 가능

-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공통과목(통합과학·통합사회)을 도입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18년~)

○ (융합교육 촉진) 인문학과 타학문 간 융합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체제 활성화

- ❖ (글로벌 지역학)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이 융합하는 세계 언어권별 지역학과로 개편하여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 ❖ (인문기반 융합전공) 경영, 디자인, CT, IT 등 다양한 실용학문 분야와 융합한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별도 학위 개설
- ※ 기업 공동 교육과정 개발, 공동 프로젝트 수행(팀티칭), 인턴십 기회 제공 등 취업 연계 활성화

- SW중심대학(미래부) 등 유망성장업종 분야의 대학교육 강화사업을 확대하여, 인문계 등 SW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융합 교육 제공, SW마인드 제고 및 저변 확대 검토('15년 8개)

- ❖ (SW중심대학) SW전공 심화과정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대상 SW기초·융합교육, 학사·평가시스템 혁신 등을 통한 SW중심의 실천적 대학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환경 마련, 전임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발 등 지원

□ 재학생(졸업예정자)도 융합 기술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및 다양화

❖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 마련

- ♦ (프로그램) '15년 하반기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시행 후 취업의지가 높은 2·3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검토('16년 상)
- ♦ (훈련직종) 인력부족률, 임금수준, 인문계 친화적 등을 고려하여 IT/SW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선정 추진
 - ① (인력부족률↑, 임금수준↑, 인문계 친화적) 에너지진단사, 영상그래픽 디자이너,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관광통역안내원, 항공기 정비원 등
 - ② (유망분야, 인문소양+타분야 융합) 빅데이터전문가, 할랄전문가, 3D 모델러, 머시닝센터조작원, UX/UI 디자이너, 핀테크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등
 - ③ (인력부족률↑, 청년 비선호→정부지원 필요) 금속, 기계가공, 도금, 비금속 광물가공, 유리제조, 점토제조, 석제품 가공 등

〈 학년단계별 훈련과정 개요(안) 〉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자	취업연계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취업인턴 제도 · 일학습병행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포함) 등
단기과정(2개월)		장기과정		
폴리텍 직업훈련 체험과정 (1주)		폴리텍 비학위 과정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과정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과정		

○ (재학 단계) 전공교육뿐 아니라 인문계 친화적 직종의 기술훈련 과정 참여기회 제공 → 기술분야 취업을 저학년부터 준비

* 인문계 학생의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15.4월 직능원, 참고2):

↳ (참여의사)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56.2%

(희망분야) ▪ 빅데이터 관리 및 마케팅 융합 80.8% ▪ 네트워크·보안·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60.9% ▪ 응용·게임 SW 프로그래머 등 58.3%

(참여희망 시기) ▪ 3학년1학기부터 54.4% ▪ 3학년 2학기부터 20.0% 등

* 민간훈련기관 훈련과정에 참여한 인문계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2015)
기계 47%, 정보통신 42% 직종에 참여

- 2~3학년부터 직업훈련 체험이나, 단기과정을 통해 인문계 등 전공 교육과 함께 기술 분야 탐색 및 훈련과정 참여 기회 제공 검토
- * 전국에 산재된 폴리텍 등을 통해 1주 기간의 직업훈련 체험을 제공하고, 방학을 활용하여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과정 참여

- ❖ (폴리텍 직업훈련 체험) 다양한 기술훈련체험, 폴리텍 캠퍼스 및 우수 훈련기관 견학 등을 통해 기술훈련 및 참여 대한 이해도 제고
- ❖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과정) 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 현장맞춤형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단기/장기과정으로 개편, 단기기초 직업교육 과정 제공(200시간 내외)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취업을 앞둔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SW/IT 등 기술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15년 하반기 4천명)

- *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폴리텍 비학위과정 등에 비전공자 대상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과정 개설

- 사업주단체, 기업, 대학이 협약하여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학점인정 등) 우수훈련프로그램 마련

- ❖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신설('15년 약 2천명)
 - '15.2월 45개 과정 1,403명 (IT/SW 기술직종 11개 과정, 350명)
 - '15.6월 28개 과정 705명 (IT/SW 기술직종 18개 과정, 425명)
 - (IT/SW)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오라클 빅데이터 실무역량 강화, 모바일SW융합형 인터랙티브 문화콘텐츠 개발전문가 등
 - (그 외) 수출입국제통상실무자 양성, 3D프린팅 및 3D디자인전문가, 중국 마케팅 협업인재 전문가 양성, 건설기계산업 해외영업 전문가 양성 등

- 비전공자도 참여가 용이하도록 적성검사, 설명회 등을 거쳐 NCS 교육·훈련과정(NCS 학습모듈 등 활용)에 참여
- 교육·훈련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현장 전문가의 참여 강화 및 멘토링 제공
- * 이공계 교육훈련 참여주저이유(인문계 학생의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 '15.4월 직능원): 적성에 맞지 않아 46.9%, 엄두가 나지 않아 15.6% 등

- ❖ (멘토링 프로그램) 기업현장의 멘토가 지속적인 상담 및 프로젝트 과제수행 지원
- ❖ (한이음 멘토링, 미래부) 프로젝트 참여형 멘토링으로 산업체 전문가(한이음 멘토)와 참여학생이 한이음 사이트(www.hanium.or.kr)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계·개설한 다양한 SW개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지원 확대
 - * '14년 기준 1,486개의 프로젝트(4,162명 참여) 진행

-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과 수준을 명시하여 과정 수료증이 국가자격과 유사한 신호기능을 하도록 설계

* 예시: 응용 SW엔지니어 수료 → SW공학 활용, 화면구현, DB구현, 데이터 입출력 구현, 애플리케이션 설계·구현 등 명시

- 졸업생을 위해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폴리텍 비학위과정에 인문계 등 비전공자를 위한 SW, 기계 등 특화 기술훈련과정 신설('15.하 2천명)

□ (취업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수료가 곧 직무능력 및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단체(SW협회 등)와 협력하여 융합 기술 훈련의 질을 철저히 관리

- 사업주단체-지역인자위-고용센터 등과 협업하여 강소기업 중심 협약기업 확충, 기업 담당자와의 훈련 중 구인면담, 취업박람회 참여, 집중 취업알선 기간 운영 등 수료와 취업과의 연결고리 강화
- 훈련과정 수료생을 다양한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문계 등 비전공자의 훈련수료 후 기업현장에 적응 및 안착 지원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및 일학습병행제*, 해외취업** 등과 연계

* 운영기관 평가시 취업인정, 직무관련 이전 교육훈련과정의 선행학습시간 인정

** SW 등 특정 기술인력 부족을 겪는 해외국가로의 취업을 위해 어학과정 등 참여를 지원하고, 최우선 구직수요 발굴 및 알선 실시

↳ 향후 10년간 미국 컴퓨터 관련 일자리는 140만개 늘어날 전망이나, 인력 공급은 40만 정도에 불과하여 약 100만 초과 수요 발생 예상(미국 code.org)

□ 입직 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가 교육·훈련을 통해 고숙련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경력개발경로 제시

○ 입직-재직단계를 거치며 초급-중급-고급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훈련 경로를 마련·제시하고, 해당 과정 참여 시 우대

- 재직 중 참여 가능한 별도 특화과정(주말·야간 활용)을 개설하여 SW 산업 등에서 인력 수요가 큰 고숙련 전문가 육성체계 마련

-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중소SW기업 재직자·초급 개발자 대상 중·고급 SW교육과정 운영, 지원단가 현실화 검토

* '15년 14개 기관(NHN NEXT,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예시: SW개발자 과정 수료자의 단계별 교육훈련 경로>

숙련 수준			
고급			SW 아키텍트
중급		SW 분석설계자	
초급	SW 개발자		
훈련프로그램	청년취업아카데미 SW중심대학	재직자 훈련지원,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일학습병행 고숙련마이스터과정, SW중심대학(원) 등
일자리 단계	재학-입직 단계	재직 단계	

❖ (일학습병행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 일학습병행제 참여 재직근로자 및 기업현장교사 등에게 On-Off 현장훈련이 연계된 최상위 수준의(獨 마이스터 과정) 자기주도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고숙련 직무기술 향상 지원

□ 충분한 직무역량을 가진 수료생이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채용·인사·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NCS를 활용한 능력중심채용·인사관리 확산('15년 1천개소, SW 업종 기업에 우선 보급·지원)

* 권역별로 인사담당자, CEO 대상 능력중심 채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연 120회, 지방 상공회의소 연계)

“충분히 SW분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져야 한다.” (SW비전공 종사자, '15.4월 간담회)

- 학력·전공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공공 입찰 등에 기술 능력 등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新직업자격 활용·확산**(’15년 하)

3 대학에서 졸업 전부터 취·창업지원

- (청년고용서비스를 대학 안으로) 다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청년취업지원 역할 강화
 - (대학을 청년고용정책의 **Gate-Way化**)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청년을 위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칭) 청년고용⁺센터를 신설 → 분절된 대학 취업지원 기능을 취업지원 단계별로 통합·연계
 - 취업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재정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반영, 청년층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학의 근본적 변화 유도
(하반기 5개소 선정, ★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16년 규모 등 구체적 내용 반영)
- (모든 대학에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 설치 대학에만 한정하여 부여하던 워크넷 사용권한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15.6월~)
 - * 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 설치 126개 대학 + 그 외 전국 137개 대학, 총 263개 대학에 워크넷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워크넷 활용한 취업지원 실시
 -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각종 청년고용 관련 정보 활용
 - 대학 취업지원 관계자간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유기적 연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Ⅱ 개편) 지원대상을 재학생(졸업 前)까지 확대 (’14년 68천명→’15년 10만명)하고, 프로세스를 청년층 특성에 맞게 유연화 (★7월 청년고용종합대책에 구체적 내용 반영)
 - 취업성공패키지Ⅱ를 통해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턴 등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제공

IV. 향후 계획

☐ 청년고용 지역별 T/F* 구성·운영, 핵심 정책과제의 효과적 집행 지원

* 서울, 중부, 경기, 광주 등 8개 지역 구성 완료('15.6.3.)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대학,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청년일자리 사업 통합홍보 추진(교육부-미래부-고용부 합동)

-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SW 교육 및 융합인재 양성, SW 분야 인문기술 융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집중홍보 추진

☐ 인문기술 융합훈련과정의 참여 학생 집중 모집(6월말~)

- (학교) 모집대상 학과 교수와 취업지원부서장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 개최(권역별, 수시) 등을 통해 참여 학생 저변 확대

* SW 협회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된 OT 프로그램 마련(인력공단, 한고원)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설명, 지역 우수훈련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

- 교육훈련과정의 학점인정 기준 설정, 대학과의 협업 기반 마련

- (학생) 권역별 사전설명회 및 적성검사 실시

- 학생 면접·선발 시 기업관계자·교수 등이 참여하여 구직 의지 및 잠재 역량이 높은 학생에 충분한 참여기회 제공

☐ SW/IT 등 교육훈련 사업 통합-연계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제고

☐ 「IT·SW 업종 종합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저숙련자를 포함한 전반적 고용개선방안 마련·추진(~9월)

☐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상생고용 등 청년고용절벽 우려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발표(7월)

참고 1

2014년 취업진로사업 대학 실태조사 결과

- 대학의 취업관련 지원금은 평균 7억 8천만원으로 교비예산 대비 약 0.93%에 불과

* 취업관련 지원금: 외부지원금, 457백만원 > 부서자체사업비, 331백만원

* 재학생 1인당 평균 교비 예산액 11,414천원, 평균 취업관련 지원금 105천원

- 취업지원서비스는 주로 진로(취업)지도 또는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취업캠프 등에 치중하고 학생의 참여율도 미흡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

(단위 : %, 천원)

구 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실시율	평균 참여인원	참여율	평균예산 집행액
취업지원관련 개별서비스	진로(취업)지도 또는 상담	97.3	2,485	33.3	35,044
	인적성 또는 심리검사	90.7	1,522	20.4	24,321
	멘토링	50.8	788	10.6	19,947
	이력서, 자기소개서	94.7	843	11.3	14,613
	모의면접	90.0	404	5.4	13,904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60.0	1,070	14.3	15,588
	취업(기업)설명회	68.7	1,369	18.3	10,761
	현장견학	50.0	692	9.3	23,724
	선후배와의 만남	58.0	732	9.8	5,892
	취업정보자료집 발간	46.0	4,151	55.6	12,261
	일회성 취업 특강(주기적 특강 제외)	84.0	1,456	19.5	9,621
구조화된 진로개발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관련 강좌(특강) 운영	81.3	1,512	20.3	33,038
	취업관련 교과목 운영	81.3	1,619	21.7	44,525
	취업캠프	88.0	384	5.1	68,586
	집단진로상담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68.0	1,030	13.8	26,768
산학연계형서 비스	인턴십 및 직장체험	83.3	213	2.9	94,568
	산업체 요구 파악 및 취업처 개발	62.0	465	6.2	16,048
사후관리 및 기타	졸업생 추적 관리 여부(DB관리 등)	66.0	2,689	36.0	16,077
	외부 교육비 지원	19.3	314	4.2	59,703

* 참여율: 평균참여인원을 대학평균 재학생 7,466명으로 나눈 단순 참여율

참고 2

인문사회계 대학생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국내 4년제 대학 3,4학년 문과계열 남녀대 학생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
표본수	• 총 861명(문과 511명, 이과 350명)
조사방법	•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리서치
조사기간	• 2015.4.10.~4.22

□ 전체 대학생 대상 조사

○ 전공분야 취업가능성

설문	응답
전공분야로의 취업계획	• 문과 74.8%, 이공계열 79.7% 있다고 응답
전공분야로의 취업가능성	• 문과 57.1%, 이공계열 65.4% 가능하다고 응답

○ 취업조건

설문	응답
취업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조건	• 문과: ① 전공분야 적합성(40.5%), 회사규모(40.5%), ② 고용안정성(10.2%), ③ 임금적정성(8.8%) • 이과: ① 회사규모(46.6%), ② 전공분야 적합성(38%), ③ 고용안정성(8.9%), ④ 임금적정성(6.6%)
졸업 후 희망임금	• 전공분야 취업 시: 평균 2,849만원 • 비전공분야 취업 시: 평균 2,785만원

□ 문과계열 대학생 대상 교육훈련 관련 조사

- (이공계 교육훈련 의향)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56.2%(287명)**가 이공계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훈련 참여 주저 이유)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46.9%)**, ②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해서(22.3%), ③ **엄두가 나지 않아서(15.6%)**로 응답

○ 희망교육훈련과정

- 1순위로 ① '빅데이터 관리, 통계, 마케팅 융합과정'(57.5%),
② 정보통신(14.9%), ③ 소프트웨어(14.1%)

- 3순위까지 통합(1+2+3순위) 시 ① '빅데이터 관리, 통계, 마케팅 융합 과정'(80.8%), ② 정보통신(60.9%), ③ 소프트웨어(58.3%)

○ (참여시기) ① 3학년 1학기부터(54.4%), ② 4학년 1학기부터(25.6%),
③ 3학년 2학기부터(20%)

○ (참여기간) ① 두 학기 동안(46.4%), ② 한 학기동안(41.3%),
③ 네 학기동안(8.6%), ④ 세 학기 동안(3.7%)

○ (인정학점) ① 3학점(36.8%), ② 6~10학점(28%), ③ 11학점 이상
(22.7%), ④ 4~5학점(6.7%), ⑤ 1~2학점(5.9%)

○ 훈련시간

- 주당 훈련시간은 ① 3시간(25.8%), ② 8시간 이상(22.1%), ③ 4~5시간
(20.5%), ④ 6~7시간(16.8%), ⑤ 1~2시간(14.7%)

- 한 학기당 훈련시간은 ① 50~60시간(23.3%), ② 61시간 이상(19.8%),
③ 20시간 이하(19.6%), ④ 21~39시간(18.8%), ⑤ 40~40시간(18.6%)

○ (실습비율) ① 70% 이상(37.8%), ② 50%(20.7%), ③ 35% 이하
(18.8%), ④ 51~69%(12.9%), ⑤ 36~49%(9.8%)

○ (교육강사) ① 기업 현직 전문가(51.5%), ② 외부 전문강사(36%),
③ 학교교수(12.3%)

○ (훈련장소) ① 학교에서(45%), ② 외부 교육훈련 전문기관(20.7%),
③ 기업 내 훈련기관(21.1%), ④ 사업주 단체(11.9%), ⑤ 일반 학원(1.2%)

참고 3

인문계 대학(졸업)생 훈련적합 직종(안), 한국고용정보원

인문계 적합직업			C 유형 대학생 친화적 아니나, 정부나 기업의 노력으로 청년층 진출 가능 직종
A 유형 인력부족률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문계 적합직업		B 유형 직업연구자의 제안을 통해 제시된 인문계 적합직업	
· 직업관련 데이터(고용부, 한국 고용정보원)에 기초하여 인문계 대학생 적합직업 21개 도출 – 임금, 부족률, 일자리 수요, 학력수준 등 고려		· 새롭게 부상하거나 기존 직업관련 데이터에서 분석되지 않는 직업 중 인문 소양과 공학 및 기타 분야의 융합을 통해 진출 가능한 직업 12개 제시 ·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 등도 고려	· 임금 수준과 부족인원 규모 그리고 부족률을 고려 11개 직업 제시 ·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진출 가능한 직종
↓		↓	↓
1. 금융상품개발원 2. 품질인증심사전문가 3. 에너지진단사 4. 해외영업원 5. 게임프로그래머 6. 컴퓨터보안전문가 7.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8. 게임기획자 9. 모바일앱개발자 10. 영상그래픽디자이너 11. 웹프로그래머 12. 광고 및 홍보전문가 13. 캐릭터디자이너 14.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15. 가상(증강)현실전문가 16. 웹기획자 17. 게임그래픽디자이너 18. 관광통역안내원 19. 의료관광코디네이터 20. 커리어코치 21. 항공기정비원		22. 빅데이터전문가 23. 할랄전문가 24. 3D모델러 25. 특수용접원 26. 머시닝센터조작원 27. 스토리텔러 28. 스마트기기(UX/UI) 디자이너 29. 웹퍼블리셔 29. 쿠르즈승무원 31. 그린카정비원 32. 핀테크전문가 33. 스마트팜구축가	· 금속가공 관련제어장치 조작원 · 일 반기 계 조립 원 · 도금 및 금속분무기 조작원 · 비금속광물가공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 유리제조 및 가공기조작원 · 점토제품생산기조립원 · 시멘트 및 광물제품제조기 조작원 · 광석 및 석제품가공기 조작원 · 비금속광물가공관련조작원 · 인쇄기 조작원 · 사진인화 및 현상기조작원

□ SW산업의 중요성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무형의 상품이 부를 창출(SW, 문화콘텐츠 등)
 - HW 기술이 상향 평준화(스마트폰 등)되면서, HW에 답을 SW 경쟁력이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 * 기존 HW 기업을 SW 기업이 인수(구글-모토로라, MS-노키아)
- 세계 SW시장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을 합한 \$1.3조 규모('12년)
 - * 반도체의 4배, 자동차의 1.5배 수준

□ 인문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연계 가능성

- SW산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손쉽게 창업(모바일 앱/게임 등)이 가능하고, HW와 달리 생산의 인력의존도가 커 높은 고용창출효과
 - * 매출 10억 원 당 고용유발계수('10년):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다만, 개발 수준·역량에 따른 미스매치로 인력과잉과 인력부족이 동시 존재
 - ↳ 세분화된 분야별로 특정기술을 보유한 고급 SW 인력부족 심화
 - * 스마트폰 확산 시기에 iOS와 안드로이드 환경의 모바일 SW 개발 인력 부족 경험
- 최근 취업난에도 인력부족을 겪고 있어 적정 교육훈련을 통해 미래 인력수요에 부합한 인재 양성시 높은 취업 가능성
 - * 부족인원 상위 10대 직종('13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③위 응용SW개발자(2,271명), ⑦위 시스템SW개발자(1,457명), ⑩위 웹개발자(1,115명)
- 특히 인문계 전공자도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전문가로 성장가능하고, 인문계 전공지식과 결합한 융합형 인재로서 다양한 역할 가능

❖국내 전산학 박사 1호, 문송천 KAIST 경영대 교수(한국경제신문, 4.30.)

- 소프트웨어는 물리학도 전자공학도 아닌 법과 논리의 세계. 이과보다는 문과 출신이 더 유리(빌 게이츠-하버드대 법대 중퇴, 스티브 잡스-리드대 철학과 중퇴)
-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이과적 기초보다 논리력 및 법칙과 순서를 잘 지키는 꼼꼼함이 필요

참고 5

비전공자 대상 SW 교육훈련 프로그램(안)

① SW개발을 위한 필요기본능력

필요능력	필요능력 정의
1. 요구사항 확인	· 수집/분석/정의된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분석모델을 확인하고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능력
2. 애플리케이션 설계	· SW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SW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모델/시스템연동/모듈에 대한 상세 설계를 수행하는 능력
3. 애플리케이션 구현	· SW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단위테스트를 수행하는 능력
4. 화면 구현	· SW 구현 지침 및 UI 표준에 따라 화면과 폼, 메뉴 등의 구조와 흐름을 구현하여 반영하는 능력
5. 데이터 입출력 구현	· SW가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연관성, 제약조건을 식별하여 조직화 하고, 최적화된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며, 데이터 조작언어를 이용해 구현하는 능력
6. 개발 테스트	· 요구사항대로 SW가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하고,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함을 발견·조치하는 능력
7. 소프트웨어공학 활용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을 SW개발에 적용는 등 SW 공학의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8. 데이터베이스 구현	·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를 설치하고 DB를 생성하는 능력
9.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시 필요한 데이터 정보의 명칭/정의/형식/규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
10. SQL 활용	· SQL 명령어(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하여 DB를 정의/조작/제어하는 능력
11.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	· 네트워크 개발환경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코딩)하고, 테스트하는 능력
12. UI 구현	· UI 설계 자료와 GUI 디자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UI 구현 표준을 수립하고 UI를 제작하는 능력
13. UI 디자인	· 시각적인 요소를 디자인하기 위해 디자인 컨셉트를 도출하며 GUI를 상세 디자인하는 능력

② 인문계열 특화 SW교육 과정(안)

(인문계열 특화) NCS 기반 응용SW엔지니어 양성과정			
구분	연수과목	능력단위	시간
< 1 단계 > 직업기초능력 (160h)	의사소통능력	직업기초능력	16h
	수리능력		24h
	문제해결능력		24h
	자기개발능력		16h
	정보능력		40h
	기술능력		40h
< 2 단계 > 실무 기반 과정 (400h)	소프트웨어 공학 이해	소프트웨어 공학 활용	60h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화면구현 애플리케이션 구현	200h
	데이터베이스 이해	DB구현	60h
	개발자를 위한 SQL 활용	SQL 활용	80h
< 3-1 단계 > 실무 심화 과정 (400h)	Network 및 JDBC 프로그래밍	데이터입출력 구현	80h
	UI 프로그래밍	화면구현	120h
	웹 프로그래밍	화면구현 애플리케이션 구현	120h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구현	80h
< 3-2 단계 > 실무 프로젝트 (160h)	소프트웨어 설계	애플리케이션 설계	80h
	실무 애플리케이션 개발	애플리케이션 구현	80h
【교육과정 특징】 - 직업기초능력 강화 => 인문계열 전공자 비전 강화 및 IT 기초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실무 기초 교육 강화 => IT 관련 전공자의 기초가 되는 이론 지식 강화 - 각 교과목별 교육시간 강화 => 전공자 수준으로 빨리 도달하도록 실습 시간 확대			

참고 6

비전공자의 SW 분야 취업성공사례

전공	러시아어 / 국제통상		
수료과정	SAP ERP 전문가 과정	취업처	삼성 SDS
○ 학점, 영어성적, 제2외국어, 자격증, 인턴, 대외 경험 등 준비하였지만 70개 지원 기업 중 단 2곳에서만 면접기회 ○ 교육과정을 통해 ERP를 이해하고, PM(Project Management) 특강 및 심화수업을 통해 CAPM(Certified Associate in Project Management) 자격을 취득 ○ ERP를 다룰 줄 알아, SM(시스템 운영) 직무를 모집하는 IT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합격 ○ PM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계획			

※ SAP ERP 자격증: 독일의 SAP사에서 인증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에 관한 자격증

전공	시각디자인		
수료과정	스마트 웹&앱 콘텐츠개발 전문가 과정	취업처	지노테크
○ 졸업 후 취업준비과정에서 학교 IT 교육센터를 통해 해당과정 개설 정보를 접하였고, 평소 스마트폰 앱에 관심이 많아서 동 과정에 참여 ○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기초가 없어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기초적인 코드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흥미를 느꼈고, 4명이 같이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자인과 간단한 코딩을 담당하며 전공인 디자인을 활용 ○ 동 과정을 통해, 단순한 디자이너 대신에 코딩과 디자인을 함께하는 퍼블리셔라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음			

※ 웹 퍼블리셔: 웹 퍼블리셔는 기획자가 만든 기획안을 문서 정리를 하고, 정리된 문서를 적절하게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일을 담당

전공	문과생		
수료과정	빅데이터베이스 마케터 양성 과정	취업	창업 준비 중
○ 여러 매체에서 쏟아지는 빅데이터에 관한 궁금증과 취업을 위한 나만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 해당 과정 지원 ○ 빅데이터 분야는 빅데이터 자체를 구하기 어렵고, 분석 프로그램이 고가라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움 ○ 교육과정에서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님이 분석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고가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해주어서 큰 도움을 얻었음 ○ 빅데이터를 배우면서, 대기업만이 아닌 일반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목표가 생겼고, 정교한 언어분석기술을 개발하여 SNS 상에서 언어로 된 빅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서비스 창업을 목표로 준비 중			

전공	사회학과 중퇴		
수료과정	웹 개발자 과정	취업	비트컴퓨터
○ 대학에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여 중퇴하고 인터넷 기자 등 다양한 활동 ○ 주변의 권유로 웹 개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마음먹고 있던 중 스펙초월 멘토 스쿨에 참여하여 과정 수료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 성공			

전공	경영학		
수료과정	빅데이터 과정	취업	한국 오라클
○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최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실제 의사결정은 컴퓨터가 내린다고 생각 ○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습득 ○ 경영학적 마인드와 통계학적 리터러시, 컴퓨터 기술을 모두 갖추고 관련 기업에 취업 성공			

전공	사회복지학		
수료과정	빅데이터 과정	취업	의료 기관
○ 여행사를 창업. 새로운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오프라인 여행모임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구조의 부실함과 고객 수요와의 접촉점을 찾지 못해 결국 사업 포기 ○ 현장실무교육, 데이터 조사, 분석을 통한 결과물 추출 등을 습득 ○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데이터 입력 및 분석 분야에서 종사			

전공	국제통상학		
수료과정	SW 개발자 과정	취업	(주)메인 라인
○ 패션영업관리 분야에 2년 3개월동안 일하다,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퇴사. ○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IT 업계의 비전에 대해 확신. 훈련 과정에 참여하며 콘텐츠 거래 사이트를 빌더를 이용해 만들기도 하고, 소셜러닝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 개발하는 것도 경험해 봄. ○ 취업 후 SW 개발 분야에서 일하며 벤처기업인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 중			

참고 7

주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요

① 폴리텍 비학위 과정

- (의 의) 국가기간산업, 신성장 산업 분야 중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직업훈련을 폴리텍에서 실시(1년 과정)
- (지원내용) 훈련비 및 기숙사비 전액, 훈련수당 20만원(매월), 교통비 5만원(매월, 통학생에 한함)
- (참여대상) 취업을 원하는 만15세 이상 실업자(학력제한 없음)
 - * 단, 상기 정규과정 외 단기·야간 과정에는('12년부터 신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재직근로자 등 참여 허용
- 예산(기금<출연금>) 및 참여인원

(단위 : 백만원,명)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 액	27,855	27,855	29,577	29,577	32,615	31,788
인 원	6,770	5,981	6,770	6,155	7,270	6,696

② 계좌제 훈련(실업자 내일배움카드 - 일반직종)

- (의 의)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
- (수행주체) 고용센터, 민간훈련기관
-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200만원 지원(취성패 I 참여자는 300만원)
- (참여대상) ① 실업자, ②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③ 고등학교 3학년(비진학예정자), ④ 건설일용직 근로자, ⑤ 농어업인, ⑥ 단시간근로자, ⑦ 전역예정자
- 예산(일반회계/기금) 및 참여인원

(단위 : 백만원,명)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 액	316,336	231,617	333,412	315,770	274,276	240,865
인 원	222,289	191,758	231,954	232,456	217,920	170,387

③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실업자 내일배움카드 - 국기직종)

- (의 의) 국가 기간·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 *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 3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해 지원
 - * 직종 수: (11년) 102개 → (12년) 109개 → (13~14년) 109개 → ('15년) 114개
- (수행주체) 고용센터, 민간훈련기관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천원
(취성패 참여자 416천원)
- (참여대상) ① 계좌제훈련 대상자, ②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 예산(기금) 및 참여인원

(단위 : 백만원,명)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 액	178,020	167,735	200,748	154,178	211,487	188,322
인 원	22,470	28,879	25,000	38,070	35,220	41,142

* 대학생 참여현황(명): ('12) 3,298 ('13) 5,266 ('14) 4,870 ('15.5) 2,283

④ 청년 취업아카데미

- (의 의)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가 운영기관으로써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 현장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 (수행주체)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대학 및 참여기업 협업)
- (지원내용) 1인당 교육비 347만원 전액 지원(운영기관 매칭 20%)
인문계 특화 추가
- (참여대상) ① 대학 졸업 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가능),
② 졸업생(34세 이하)
- 예산(일반회계) 및 참여인원

(단위 : 백만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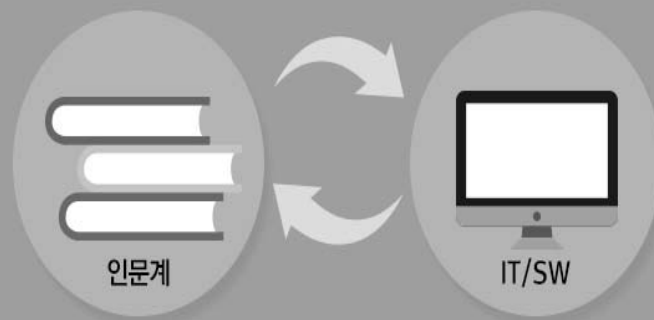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 액	26,443	25,990	39,300	38,555	33,470	27,922
인 원	8,000	7,777	14,000	13,021	17,000	13,689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인문계를 부탁해~)

15. 6. 24.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인문계를 부탁해~



고용노동부

1

저학년부터 함께해요! 전공별 진로탐색 · 역량 강화

01

나의 직업! 진로탐색프로그램으로 시작하자!

진로지도 교과목
필수과목 지정

한국고용정보원 인증
외부 프로그램 확대

참여에 따라
인증 포인트 부여
→ 장학금 지급



02

전공별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문계 학과별 직업경로 모형 (전공별 취업맵)
교수용 진로상담 가이드
대학 취업지원 로드맵 확충

03

교수님! 최고의 진로지도 전문가로!

교수·직원 대상 진로지도 연수
학과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추진
취업전담교수제 강화



04

학교생활 중 일경험을 늘려보아요

직무체험형&취업연계형 목적별로 정비·내실화 → 체험형 확대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확산



고용노동부

2

재학생·졸업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융합기술교육·훈련

재학생을 위한 융합기술훈련과정 신설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 마련(폴리텍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주단체-기업-대학이 협약하여 우수훈련프로그램 개발
- NCS 학습모듈 활용, 현장 전문가 참여, 멘토링제공, 수료증 발급

감성과 이성을 두루 갖춘 융합인재로 성장하기!

복수전공/부전공 선택시 걸림돌 제거, 이공계 확대 유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확대(15년 8개)
인문기반 융합전공 신설 등 융합인력 양성체계 활성화

기술훈련 수료는 곧 취업!

강소기업 중심 협약기업 확충
청년취업인턴제도 및 일학습병행제, 해외취업 연계

인문계 전공자, 불이익은 없다!

NCS를 활용한 능력중심채용·인사관리 확산
- 권역별 인사담당자, CEO 대상 교육 실시(연 120회)
新직업자격 활용·확산



졸업하면 끝? No! 중장기 경로까지~



- 재직 중 참여 가능한 특화과정 개설
- SW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확대

3

대학에서 졸업 전부터 취업·창업을 지원합니다!

! 대학을 청년고용의 Gate-Way 로! 학교가 나서서 취업을 도와준다!

대학 안에 청년고용정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가칭) 청년고용⁺ 센터 신설 ('15년도 5개 대학 → 확대)

! 모든 대학이 국내 최다 취업정보 제공!

모든 대학에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관계자간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



! 확~! 넓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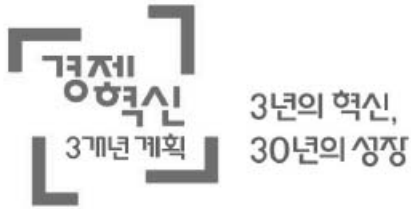
취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 자료는 2015년 7월 27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1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2015. 7.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청년고용 현황	109
II. 청년고용 부진 원인	110
III. 청년고용 전망	111
IV.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방향	113
V. 세부 추진과제	114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14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124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129
VI. 향후 추진계획	134

[참고] 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효과 / 138

I. 청년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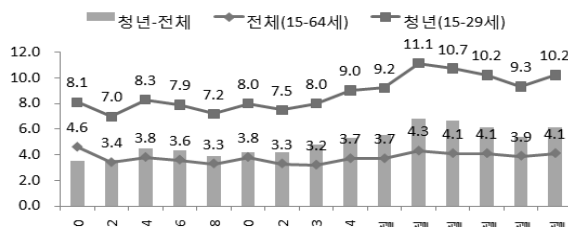
◇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취업 애로계층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의 어려움 지속

① **[청년 실업률]** '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

○ '15.6월 10.2%로 전체(15~64세, 4.1%)의 2.5배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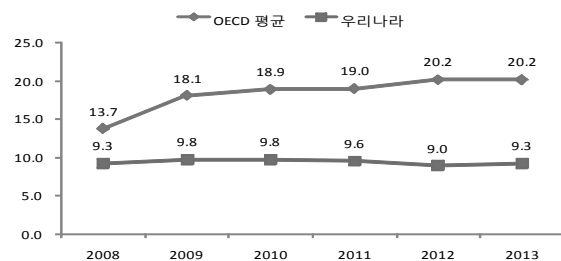
* 청년 실업률(15~29세, %) : ('13) 8.0 → ('14) 9.0 → ('15.6) 10.2

연령계층별 실업률(% , %p)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와 OECD 청년 실업률(%)



* 자료 : OECD Stats, 15~24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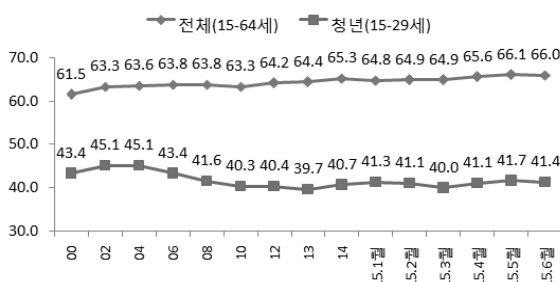
② **[청년 고용률]** 전체 고용률이 점차 호전되는 것과는 달리 청년 고용률은 '04년 이후 하락 추세

○ 청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정체

* 청년 고용률(15~29세, %) : ('13) 39.7 → ('14) 40.7 → ('15.6)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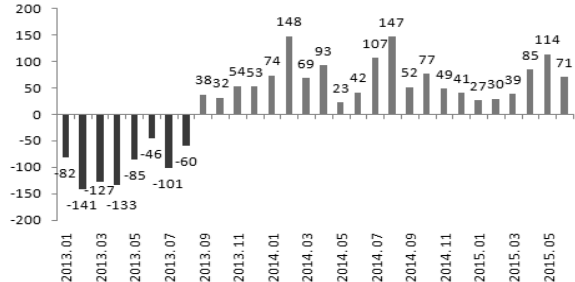
* OECD(15~24세 기준) 대비 2/3 수준에 불과

전체 연령층 대비 청년 고용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③ **[취업애로계층]**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수준으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

* 115.7만명 = 실업자 44.9만명 + 시간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5만명 + 잠재구직자 등 64.3만명 (통계청, '15.6월)

II. 청년고용 부진 원인

◇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 문제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며 복합적으로 작용

① **[경제적 요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며 신규인력 수요 저하

* GDP성장률(%): (80년대) 9.8 → (90년대) 6.6 → (00년대) 4.1 → ('14) 3.3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 25.5 → ('05) 19.2 → ('10) 13.9 → ('12) 13.2

○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정체 상태

② **[구조적 요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 시간당 임금수준('14.6월) : 대기업 정규직 100 > 대기업 비정규직 64 > 중소기업 정규직 52 > 중소기업 비정규직 35

○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일자리 정보 관련 미스매치도 상존

* 전공별 인력초과수요(천명, '13~'23년간, 고용정보원) :

(인문사회) △61 (예체능) △97 (사범) △26 (자연) △134 (공학) 277 (의학) 37

* 취업준비 등으로 대학생 휴학은 ('07.5) 25.8만명 → ('14.5) 44.8만명으로 증가

○ 기업은 신규채용시 신입직원에 비해 훈련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

* 신입/경력직 채용 비중 추이(%):

('09) 82.7/17.3 → ('11) 80.3/19.7 → ('13) 78.1/21.9 → ('15) 72.9/27.1

Ⅲ. 청년고용 전망

◇ 기존의 경제·구조적 요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

□ 그간 감소세를 유지했던 20대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소위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대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 ('13) △45 ('14) 0 ('15) 30 ('16) 39 ('17) 27 ('18) 6 ('19) △21 ('20) △55

○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에 이른 시기('08~'09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학력자 공급도 당분간 증가

* 대 학 진 학 륜(전체대학 등록자 기준, %)

: ('90) 27.1 ('00) 62.0 ('05) 73.4 ('06) 74.4 ('07) 76.5 ('08) 77.0
('09) 77.8 ('10) 75.4 ('11) 72.5 ('12) 71.3 ('13) 70.4 ('14) 70.9

□ 반면,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내년부터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3년간('16~'18년) 연평균 10만명(총 30만명) 추정(한국노동경제학회, '13.10월)

<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절벽 관련 분석 >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미도입 → 청년 신규채용 8.4% 감소
(연세대 산학협력단, '12.11월,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 940개소 대상 조사결과)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92만명('20년, 누적 기준)에 대해 '16~'20년간 인건비 26조원 절감, 청년 31만명 신규채용 여력 확보 가능 (한경연, '15.6월)

◇ 청년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동력 상실의 부작용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위 조사)

1.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

분 야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 고용안정과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 다만 임금피크제가 청년채용과 연결되도록 세부조치 마련 필요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직업훈련	▶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산업 현장 연계도 강화할 필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의의,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대 병행 필요 (서00, K대 총학생회장)
서비스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청년위-청년단체 간담회)

2. 인력수급 미스매치 관련

분 야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학교육	▶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 인문계 학생들의 복수전공·부전공을 대학이 제한하는 사례도 있음 (김00, 취업준비생)
능력중심 채용	▶ 공공부문·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NCS를 활용한 채용을 유도할 필요 (청년위 모니터링)
중소기업 근로여건	▶ 초과근무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 (청년위 실태조사)

3. 고용지원 인프라 관련

분 야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학 취업지원	▶ 대학 취업지원사업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고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통합·조정 필요, 저학년부터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필요 (청년위 모니터링)
해외취업	▶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해외 일자리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해외취업을 꿈꿨던 이들도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 (김00, K-Move 스쿨 연수생)

IV.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방향

- ① **[가시적 일자리 창출]**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 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 체질 개선 등 가속화
- ③ **[정책효과성 제고]** 정부부처·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비전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일자리
창출 목표

'15~'17년간 2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추진과제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 ❖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2.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 ❖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체질 개선
- ❖ 중소기업 취업 촉진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재편
- ❖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 청년 해외취업 촉진

V. 세부 추진과제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청년의 일시적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과 수요가 있는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

① **[교육]**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분야 청년채용 확대

①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하여 '16~'17년간 총 1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 확보

- 최근 2년('13~'14년) 연평균 5,500명 대비 年 2,000명(필요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2년간 추가 수용

☞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② (시간선택제) 전환요건 완화, 심의 간소화 등 전환제도 개선을 통해 '16~'17년간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 동일학교에서 2명 이상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하던 시간선택제 전환요건을 인근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 시간선택제 전환시 의무화되어 있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간소화*

* 학교운영위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시 운영계획·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 학교인사위에서 신청요건 심사 후 전환 승인

☞ (교육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15.9월)

③ **(특수교사)**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충원 및 기존 학급 과밀운영 해소를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제고

* 특수교육법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 필요, '15.4월 기준 법정 정원 17,800명 대비 63% 수준인 11,200명 배치

☞ (행자부) '16년 특수교사 정원 확대('15.8월)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④ **(방과후학교)** 농어촌 및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밀집지역 학교에서 청년에게 SW·기초학력·논술·예체능 등 분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16~'17년간 4,000명)

☞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② **[보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간호인력 채용 확대** 유도('15~'17년간 1만명)

* 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간호사+간호조무사)
('15년 현재 49개 병원에서 시행중)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6명 → 10~12명 수준으로 낮출 필요

○ '1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 확대('16년~)

* '15.6월 간호인력 인건비, 병상시설 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포괄간호입원료를 약 40%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수가 既개편

- 다만, 서울·대형 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강구

※ 포괄서비스 확대 관련 세부 추진방안·일정은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강화 대책」에서 확정·발표할 예정

☞ (복지부) 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지침 개정('15.9월)

○ 유휴 간호인력*의 교육·취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 '14.12월 기준 간호사 면허취득자 32.3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인력은 46% 수준인 14.7만명에 불과

-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간호인력 DB 구축, 대학정원 조정·간호인력체계 개편 등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 (복지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간호인력 DB 구축('15.12월)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16.上)

③ [보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을 확대

○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의 휴가 뿐 아니라 보수교육, 질병, 사고, 가족喪 등의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5일로 획일화되어 있는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용

* 개편시 필요한 대체교사 필요인력은 1,500명 수준(현재 499명)으로 추산

※ 보조교사·대체교사에 대한 구체적 지원규모·범위 등은 보육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과 등 검토 후 결정

*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86만명(年 12만명 신규취득) 중 22만명 채용중, 현재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총 33천개소

☞ (복지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유치원 교사) 누리과정 확대시행 지원 및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원아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 '12년 기준 교사 1인당 원아수 평균 16명(OECD 14명)

☞ (행자부) '16년 유치원 교사 정원 확정('15.8월)
(교육부) '16년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15.10월)

④ **[공공기관]**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등 전체 신규채용을 예년 수준('15년 17,000명)보다 확대

* 예시: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정보화지원 분야 등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여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 확충

* 퇴직감소분('16~'17년) :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공공기관) 1,300명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16년말→'18년말) 및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15.12월)

- 인문계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활성화

*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이공계 연구기관 전환 가이드라인 旣 마련('14.11월)

☞ (국조실) 인문계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15.11월)

⑤ **[공무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확대*, 전환제도 개선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간소화**로 신규채용여력 확보 ('15~'17년간 4,500여명)

*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목표(명): ('15) 1,705 → ('16) 1,275 → ('17) 1,572

** 근로시간 단축선택 범위 확대(현행 15~25시간 → 개선 15~35시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공고·서류전형 절차를 생략하고 부처에서 면접시행

-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별도정원 활용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인사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15.12월)

2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 확대

① **[민관 협력]**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민관합동 대책회의」 구성

○ '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4만명 이상)·민간(16만명 이상) 부문에서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

-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전경련·경총) 대기업 협력, (중견연) 중견기업 협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협력, (대한상의·경총) 지역단위 협력, (무역협회) 해외취업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이 지역상의·인적자원개발위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 (서울) CJ, (인천) 한진, (대전) SK, (대구) 삼성, (광주) 현대차, (부산) 롯데, (울산) 현대중공업, (강원) 네이버, (경기) KT, (충북) LG, (충남) 한화, (세종) SK, (전북) 효성, (전남) GS, (경북) 삼성, (경남) 두산, (제주) 다음

② **[신규채용 지원]**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청년고용 유인 제공

① **(세제지원)**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도록,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기존 지원제도의 일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일몰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등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5.12월)

※ 청년고용 관련 추가적인 세제지원은 '15년 세법개정案 발표시(8월) 구체화할 예정

- ②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年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지급(年 1만명)

*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공정성 확보

☞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8월) 및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③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한시(3년) 연장

* '15년까지(중소는 '16년)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최대 年 1,080만원)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12월)

- ④ [청년인턴] 우량 중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 ('16~'17년간 10만명)

- (우량기업 참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관 경제단체 등을 활용하여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확보

우량기업 인증제도(안)

개 요	강소기업(12천개), 중견기업(4천개), 외국계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청년인턴 우수기업, 우수근로장학기관 등 총 3만개 기업 인증
인증기준	근로시간 등 청년에 대한 처우, 참여청년 만족도 조사결과 등 활용
인증제운영	권역별 협의체에서 지역내 인증기업 선정 및 관리
인증제관리	부당사례 1회 이상 발생시 인증 철회, 3회 이상 발생시 인턴사업 참여제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면제

- (취업연계형)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 현재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 지급

☞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및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직무체험형) 인문계 전공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및 관리·점검체계 등을 마련하여 부당대우 방지 및 체험 내실화

⑤ **[직업훈련]**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성장 직종* 중심으로 양질의 직업훈련 대폭 확대('16~'17년간 10만명)

* (창조경제 산업) 전자정보, 바이오, 태양광에너지,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① **(대기업 훈련 신설)**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대기업 자체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 실시

* 주요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간 1:1 전담지원체계 하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 완료

- 수료 후 채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훈련수료자의 대기업 및 협력사 채용을 유도

②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 현재 대학 졸업(예정)자 위주인 참여 대상을 재학생까지 확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학 4학년 1학기 → 대학 3학년 2학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학 4학년 2학기 → 대학 4학년 1학기

- 대학이 훈련기관-기업 연계하에 재학생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주말·야간 등을 이용한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
-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경로 다각화를 위해 융합기술 교육 훈련 확충

③ **(인문계고 재학생 훈련 확대)** 비진학 인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등이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확대

- 시·도 교육청이 훈련생 모집·상담·기관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강구

☞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및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3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 조성

①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방안 추진

○ **(취업규칙)** 「고령자고용촉진법」등 법령취지 및 판례를 토대로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규칙 변경절차·기준 명확화

-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주력

* '15.7월 기준 30대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47%가 도입(전체 사업장의 경우 9.9%)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정리

☞ (고용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15년)

○ **(인력운영)**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계약에 관한 기준·절차 명확화

-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계약해지 등 인력운영에 관해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원칙 정립

○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사회안전망)** 실업급여제도 개편, 출퇴근 산재보험 인정 등을 통해 청년층 실직 및 근무상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부·기재부 등)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마련('15.8~9월)

② **[서비스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 및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자금애로 해소
 - R&D·세제지원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4개)* 연내 국회통과 추진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 1개 이상의 서비스 외투지역 지정 추진, 산단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 추가확대('15.4/4분기) 등 입지공간 확대
 - 문화콘텐츠 펀드(900억원) 및 글로벌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추가 조성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의료)** 의료산업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등 신시장 개척과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 지원
 - * 국가별·지역별 체계적인 의료기관 해외 진출전략 마련('15.4/4분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기관 지정('16.上) 등
 - **(관광)**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및 양질의 콘텐츠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質을 제고하기 위한 관광산업 육성대책*(7.9일 발표) 추진
 - * 주요내용
 - ①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외국정부·여행업계 등 민간협력 강화 등
 - ②타겟그룹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한류선호) K-POP 공연장 리모델링 (고부가 관광) 건강검진 관광상품화 (체험관광 선호) 산악·연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
 - ③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통합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등
 - **(콘텐츠)**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15년~), 콘텐츠코리아랩 확충 (전북·경북) 등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제작 지원을 강화
 - **(SW)** IoT·클라우드 시범사업 등 SW 기반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③ **[제조업 혁신]** 유망 신산업 육성,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제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신규채용 여력 확보

- **(미래성장동력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新시장 선점을 통해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新산업생태계)**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스마트자동차 등), 사업화 지원자금 조성·투자* 등 조기 사업화 여건 조성
- * 성장사다리펀드, 신성장동력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 **(인력양성)** 제조방식 변화, 新산업 확산 등에 따른 미래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 3D프린팅, 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IoT 등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인력 양성, 고급·융합 SW인력 공급 확대 등
- **(규제완화)** 제조, 창업·성장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 글로벌 수요성장이 예상되고 산업연관 효과가 우수한 ICT, 바이오, 농식품 등에 집중
- **(벤처·창업지원)** 청년창업가 양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맞춤형 펀드 조성 등을 통해 '15~'17년간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추진
- * 창업선도대학내 사관학교식 프로그램 확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15년 60개),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④ **[농수산업 취·창업]** 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층 농수산업 취·창업 촉진

- **(농식품업)** 귀농인 창업 지원, 농업기술 활용도 제고, 농식품 아이디어창업 펀드 조성 등 농식품업에 특화된 창업기반 마련
- **(수산업)** 채용약정(수산인단체), 다목적 실습선 건조 등 수산계고교 특성화교육 내실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1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맞춤형 교육 강화,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①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학교교육에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등 '직무' 중심의 교육 강화

○ (교육과정 평가)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가시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

* 취업률,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실적 등 취업관련 배점 확대 등

☞ (교육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사업 개선방안 마련('15.9월)
'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6.3월)

○ (현장교육 확대)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목과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15년 5개교→'16년 10개교)

☞ (교육부) 장기현장실습제 시범대학 선정('15.8월)

○ (계약학과* 활성화) 산업체-대학간 계약체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입학대상을 임원·대표자까지 확대

* '14년 기준 총 155개교 542개 학과 운영중

** 채용조건형에 한해 동일권역(광역시·도 또는 100km 이내) 외 설치 허용 등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14년 2개)의 경우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재교육형*은 수요조사 후 우수대학 중심으로 추가확대

* '14년 기준 40개 대학 44개 학과 운영중

☞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개정('15.8월)
(중기청)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② **[일학습병행]**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 단계로 확산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재학단계 확산) 고교·대학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지원 등을 강화

* 기존 졸업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재학생 대상 사업 참여시 훈련 인프라 등을 추가로 지원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구분	모델 유형	추진계획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 '17년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호텔·관광 등)로 확대 검토
전문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 '15년 16개 시범사업 실시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 등 검토)
대학	IPP형(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 '15년 13개 → '17년 전체 4년제 대학의 30% 수준으로 확대 추진

☞ (교육부·고용부) '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41개교 추가지정('15.10월)
Uni-Tech 시범사업 실시('15.9월)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지원기준 마련('15.9월)

- (참여기업 지원) 중소기업 위주의 일학습병행제에 대기업·공공기관 참여확대 방안 강구

☞ (고용부)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확대방안 마련('15.9월)

2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대학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

- 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대학·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 강화

- (전공별 전망 세분화) 대학 구조개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 인력수급차 전망 제시
 - 現 6대 전공계열별(인문사회·예체능·공학 등) 인력수급전망을 학과·전공 중분류(35개) 이하 단위까지 세분화
- (정성적 전망 강화) 미래 산업·기술 변화, 대학현장 의견 등을 전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산업·미래 전문가 참여 확대
 - * 대학·기업 담당자 면담조사 등 전공별 정성적 수요전망 강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전망 결과를 점검
- (추진체계) 민관합동 '미래인재육성협의체'(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인력수급전망 개편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협의

☞ (고용부·교육부)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실시('15.10월)
(기재부) '미래인재육성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의·조정(계속)

② [대학구조 개편] 우수대학 중심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하여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창출

-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 사업 추진 세부내용을 확정(12월)
 - (인력수급 전망과 연계) 취업률 현황, 산업·직업·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등을 제시하여 학과개편·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학사구조 개편) 기존 학과 통폐합, 학부·단과대학 신설 등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 수준 지원
 - (학사제도 개선) 전과·복수전공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연계전공 다양화, 취업 연계과정 도입 등 교육내실화 병행

☞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추진계획 마련('15.12월)

3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재직유인 강화, 취업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1 [근로여건 개선] 취약지역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육아·교통 등 근로여건을 개선

- (주거)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확대 (현재 복수기업 근무경력 합산 5년인 자에 단일기업 재직연수 3년인 자를 추가)

☞ (중기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15.12월)

- (교통)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허용기준('15.6월 제정)에 따라 '15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고시 시행(중전 연1회)

- (육아)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15년 현재 52개소)을 총 100개소 설치 목표로 점진적 증설 추진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2 [재직유인 강화]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

- (병역애로 해소)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업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배정인원을 2배 추가확대(年 4,500명 → 9,000명)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15.9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고시에 반영('16.5월)

- (장학금*) 대학 재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장학금 지원확대 검토

* (예시) 현재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전문대생·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 근무 또는 창업유지를 의무화

☞ (교육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참여 근로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강화

*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5년 이상 재직 후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가 만기 후 적립금 수령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업에는 중기청 사업(한국형 히든챔피언 및 후진학 장려금 사업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5.12월)

- 가입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성과 보상기금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중기청) 중견기업법 개정('15.12월)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6년초)

③ [취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의 청년고용확대 유도,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해 취업 분위기 조성

- 우수 중소기업의 자발적 청년고용 확대 운동*, 찾아가는 설명회 및 채용 박람회 개최

* 청년 1+ 채용 운동, 이노비즈 3-3 일자리 프로젝트 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년)에 맞춰 중학생을 위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 (중기청)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1 청년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하여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효율화 추진

① **[유형별 재편]** 직업훈련·인턴 등 유형별로 고용효과 등 평가 →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준 통일 및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직·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결과 [34개 → 18개]

- ① **(직업훈련)** 고용부 7개 사업 투자규모 조정 및 효율화 + 각 부처 16개 인력양성사업을 6개로 통합
- ② **(인턴)** 중앙부처 6개 사업을 3개로 통합 + 지자체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고용부 청년인턴제와 단계적 통합관리 추진
- ③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I·II 통합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신설 + 대학내 취업지원기능 연계 강화

☞ (기재부) '16년 예산안에 반영('15.9월)

- 입직연령 지연을 감안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15~34세로 확대

☞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15.9월)

②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신설]** 각 부처·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고 예산편성시 반영

*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각 부처·지자체가 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5.12월)

2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및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① **[청년전용 취업지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I·II*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가칭)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15년 10만명 → ‘16년 20만명)

* 패키지 I 은 취약계층, II 는 청년·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담·경로설정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취업지원서비스의 Gateway)**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허브로 직업훈련, 인턴제, 해외취업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맞춤형지원)**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을 진단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계획을 수립

구 분		직무능력	
		低	高
취업의욕	低	A	B
	高	C	D, E

- ① A유형(통합지원형): 통합지원
- ② B유형(체험중심형): 직무체험형 인턴 등
- ③ C유형(훈련중심형): 직업훈련, 취업연계형 인턴 등
- ④ D유형(조기취업형): 2단계 생략하고 바로 취업알선
- ⑤ E유형(해외취업형): 해외취업지원

- **(대상확대)** 청년층 조기취업 촉진을 위해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생)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생) 마지막 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 학생

- (취업알선 강화) 참여청년에 대한 취업알선 기간을 기존 3개월
→ 6개월로 연장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② [전달체계 효율화] 각 부처별로 산재한 대학내 청년 취업기능*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內 “청년고용+센터”를 확대

* 대학청년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관, 산업협력단취업지원기능,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실), 기업가(창업)센터

- (연계 강화) 청년고용+센터를 방문한 청년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청년고용+센터 확대) 청년고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센터 未설치 대학의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기존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등 청년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청년고용+센터로 점진적으로 통합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고용센터 청년지원 강화) 청년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청년
들을 위해 일반 고용센터內 청년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
 - 전국의 군부대와 소재지역 고용센터간 연계를 통해 전역예
정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③ [통합전산망 구축] 기존 고용정보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청년에 특화된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개발·활용중인 전산망을 대표 사이트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통합·연계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3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유망 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 해외취업을 '14년 5천명
→ '17년 1만명으로 확대(8월중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별도 발표)

① **[지원시스템 개선]** 민관협력을 통해 구인수요 발굴부터 사후관리
까지 취업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

○ (구인수요 발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 운영, 해외 K-Move
센터 5개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15년 해외구인 수요 1만명 발굴
→ '17년 알선 취업자 1,500명으로 확대

☞ (고용부·외교부 등)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 운영 등('15.8월)

○ (상담·알선) 청년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해외취업 알선시장 육성
→ '17년 민간 알선 해외취업자 3,000명으로 확대

* 예시: 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등

- 글로벌 리크루트^社간 협업을 통한 컨설팅·알선 지원 병행

☞ (고용부) 민간 알선시장 제도개선안 마련('15.12월)

○ (인프라 확충) 「WorldJob⁺」를 구축하여 구인·구직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접근성 개선

② **[전문인력 진출확대]** 해외취업 유망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을 완화
→ '17년 해외 전문인력 2,000명 진출

* 동남아 신흥국(3개국), 선진국(6개국), 중동(4개국), 중남미(2개국) 등 총 15개국

○ (맞춤형 진출전략)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력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전문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 예시: (보건의료) '16년까지 해외진출 전문인력 2,500명 양성,
(건설플랜트) 연간 5천명 이상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 (자격·비자) 유망직종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하고, 비자발급 요건 완화·전문직종쿼터 확보 등 외교노력을 경주

☞ (고용부·복지부·국토부 등) 직종별 맞춤형 전략수립 및 예산안 반영('15.9월)

③ [사업 재정비] 우수사업 중심 대형화 유도, 부진사업 통폐합 등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체계 개편

- (K-Move 스쿨) 고급·전문직종 중심으로 장기과정을 확대*하고, 우수기관 대형화**·부진기관 퇴출을 통해 교육훈련 품질 제고
→ '17년 K-Move 스쿨 취업자 2,000명으로 확대

* K-Move 스쿨 장기과정 : ('14) 200명 → ('15) 500명 → ('16) 1,000명

** 위탁기간 연장(2+3년), 인증서 발급,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

- (K-Move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하고 참여자의 사후관리 강화
 - (사업 통폐합) 비자취득이 어려운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사업(교육부) 폐지, 글로벌마케팅인턴(산업부)은 K-Move 스쿨로 통합
 - (사업개편) 산림협력인턴(산림청) 등은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인턴·봉사사업의 저소득층 참여비율 대폭 확대

☞ (고용부·산업부·교육부 등)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 (해외인턴) 장기과정(6개월~1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급시기·금액을 조정*
→ '17년 수령자를 1,500명으로 확대

* (현행) 취업 후 1개월·6개월 시점에 각 150만원 지급

→ (개편) 취업 후 1개월·6개월·1년 시점에 각 100만원 지급

☞ (고용부) '16년 예산안 반영('15.9월)

VI. 향후 추진계획

◇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	----------	------------	----------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1-1. 공공부문 청년고용			
1-1-1. 교원 명예퇴직 수용 확대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2.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교육부	제도 개선	'15.9월
1-1-3. 특수교사 확충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확대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5.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복지부	사업지침 개정	'15.9월
1-1-6.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복지부	예산안 반영	'15.9월
1-1-7. 간호인력 DB 구축	복지부	DB 구축	'15.12월
1-1-8.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복지부	계획 마련	'16년
1-1-9.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복지부	예산안 반영	'15.9월
1-1-10.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교육부	교육교부금 예정교부안 반영	'15.10월
1-1-11.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기재부	계획 마련	'15.12월
1-1-12. 공공기관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고용부	법 개정	'15.12월
1-1-13. 인문제 연구기관 시간선택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지침 마련	'15.11월
1-1-14. 공무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확대, 전환제도 개선 등	인사처	개선방안 마련	'15.12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	----------	------------	----------

1-2.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2-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재부	법 개정	'15.12월
1-2-2. 기존 지원제도 일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	기재부	법 개정	'15.12월
1-2-3.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신설	고용부	시행령 개정 예산안 반영	'15.8월 '15.9월
1-2-4.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고용부	예산안 반영 시행령 개정	'15.9월 '15.12월
1-2-5. 청년인턴제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15.9월
1-2-6.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1-2-7. 대기업 직업훈련 신설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5.9월
1-2-8.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	고용부	세부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5.9월

1-3.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1-3-1. 취업규칙 변경절차 · 기준 명확화	고용부	지침 개정	'15년
1-3-2. 근로계약 기준 · 절차 명확화	고용부	지침 개정	'15년
1-3-3.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고용부	법 개정	'15년
1-3-4.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부	법 개정	'15년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2-1.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

2-1-1.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활성화	교육부	개선방안 마련	'15.9월
2-1-2. LINC 사업 평가시 취업성과 반영 확대	교육부	계획 수립	'16.3월
2-1-3.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	교육부	시범대학 선정	'15.8월
2-1-4. 계약학과 설치요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	교육부	운영요령 개정	'15.8월
2-1-5. 중소기업 채용조건형 · 재교육형 계약학과 확대	중기청	예산안 반영	'15.9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2-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고용부	예산안 반영 기준 마련	'15.9월 '15.12월
2-1-7. Uni-Tech 육성사업 본격 운영	교육부 고용부	추가 지정	'15.10월
2-1-8.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지원 강화	고용부	예산안 반영 지원계획 마련	'15.9월 '15.12월
2-2.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체질 개선			
2-2-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고용부 교육부	전망 실시	'15.10월
2-2-3. PRIME 사업 세부내용 확정	교육부	계획 마련	'15.12월
2-3. 중소기업 취업 촉진			
2-3-1.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기청	법 개정	'15.12월
2-3-2.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관련 분기별 고시 시행	국토부	고시 시행	'15.9월
2-3-3. 중기 밀집지역 공동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강화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2-3-4.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개편안 마련	병무청	관리규정 개정 고시 반영	'15.9월 '16.5월
2-3-5.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확대	교육부	예산안 반영	'15.9월
2-3-6. 성과보상기금 수령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재부	법 개정	'15.12월
2-3-7.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 확대	중기청	법 개정	'15.12월
2-3-8. 성과보상기금 참여 중견기업 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기재부	시행령 개정	'16년초
2-3-9.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등	중기청	예산안 반영	'15.9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	----------	------------	----------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3-1.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3-1-1.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등	고용부 등	예산안 반영	'15.9월
3-1-2.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기준 확대	고용부	시행령 개정	'15.9월
3-1-3.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신설	고용부	법 개정	'15.12월
3-2.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2-1.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3-2-2. 청년고용+센터 확대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3-2-3. 통합전산망 구축	고용부	예산안 반영	'15.9월
3-3. 청년 해외취업 촉진			
3-3-1. 해외취업 지원시스템 개선	고용부 등	협의체 운영 등	'15.8월
3-3-2. 전문인력 진출 확대	고용부 등	전략 수립 등	'15.9월
3-3-3. K-Move 사업 재정비	고용부 등	예산안 반영 등	'15.9월

참고

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 효과 ('15~'17년)

□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15~'17년중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부문별) 공공부문 4만명, 민간부문 16만명

○ (유형별) 신규채용 7.5만명, 청년인턴 7.5만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

구 분	세부방안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명)			
		'15년	'16년	'17년	계
신규채용		12,000	30,000	33,000	75,000
▶ 공공부문	교원 명예퇴직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2,000	18,000	20,000	40,000
▶ 민간부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10,000	10,000	30,000
▶ 해외취업	유망직종 전문인력 지원	-	2,000	3,000	5,000
청년인턴	강소·중견기업 인턴	15,000	30,000	30,000	75,000
직업훈련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	10,000	10,000	20,000
일학습병행제	대기업 확대 등	2,000	8,000	20,000	30,000
계		29,000	78,000	93,000	200,000

- 1) 대책에 반영된 과제 중 일자리 기회 창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문만 포함
- 2) '14년 지원수준과 비교하여 각 연도별로 경제계와 협력하여 추가로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 수 집계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취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청년의 숫자가 110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3, 4년간은 그간 노동시장 진입에 감소세를 유지하던 20대 인구가 소위, 예코세대의 진입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고,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고용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 정부와 경제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제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만들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1-1.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나간다.

*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채용, 특수교사 확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 인력 확충,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및 유치원 교사 확충, 시간 선택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1-2.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 기존직원 이직시 청년인력 우선 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3만 5천명(대기업·중견기업, 해외취업)을 추가 채용하고, 인턴 7만 5천명(중견기업 중심), 유망직종 직업훈련(대기업) 및 일학습병행제(대기업·중견기업 중심) 5만명 등의 기회 제공

1-3.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세제 및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2-1. 정부는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산업수요 기반의 대학 체질 개선, 일학습병행제 확대 등을 통해 교육훈련이 산업수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분야의 개혁 노력을 강화한다.

2-2. 경제계는 학교교육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과정(Uni-Tech) 및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및 실습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3. 정부와 경제계는 이상의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한다.

- 3-1. 중앙단위에서 관계장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이 확대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3-2. 지역단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지역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지역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청년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2015년 7월 27일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 허창수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박병원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박성택	한국 무역협회 회장 김인호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회장 강호갑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 최양희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윤상직	고용 노동부 장관 이기권	중소기업 청장 한정화

상세자료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2015. 11. 27

관계부처 합동

차 례

I. 추진배경	149
II. 그간의 성과 및 평가	150
III.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152
IV. 주요 추진과제	154
1. 해외진출 유망국가 및 직종 선정	154
2.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156
3. 풍부한 정보에 기반한 민간·공공 알선 강화	169
4. K-Move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175
V. 지속 추진 과제	178
1.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추진	178
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180
3. 대학의 해외취업 지원 역할 강화	181
4. 해외취업 추진체계 정비	182
VI. 향후 계획	184
<붙임> '16년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예산(안)	188

I. 추진배경

- 정부는 지난 20년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속 추진
 - '98년 실업대란 상황에서 해외취업 알선업무를 재개한 이래 '08년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 계획 등 양적 성장 도모
 - * '91년 중동 건설 붐 종료로 한국해외개발공사 폐지 등 해외취업 지원 업무 중단 → '98년 IMF 사태를 계기로 업무 재개
 - '13년부터 현 정부는 해외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양 → 질」 중심으로 개편하고, 해외 취업·인턴·봉사·창업을 「K-Move」로 브랜드화하여 사업간 연계 추진
-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해외진출 사업을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의 관점에서 재조명 필요
 - 청년들의 도전정신 증가 등으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증가
 - * '15.4월 청년 해외취업 인식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의 87%가 '기회가 있으면 해외취업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
 - 한국인의 성실성, 한류열풍, IT 강국 이미지 확산 등으로 해외진출 여건도 유리하게 조성

< 그간의 추진경과 >

- ◆ 범정부 「청년인력 해외진출 TF」 구성·운영 (3.25~, 6차례)
- ◆ 해외 인력수요 조사 및 K-Move 현장 모니터링 (4~5월)
-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국무회의 보고 (7.21)
- ◆ 국가별·직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 (총 20여 차례)